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연구

-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

한신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김원복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연구

-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하 중 문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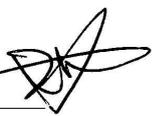
2008년 11월 26일

한 신 대 학 교 대 학 원

일 본 학 과

김 원 복

김원복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하종문 

부심 송주영 

부심 배준호 

한신대학교 대학원

2008년 12월

## 국문초록

제주도 각지에는 아직도 왜 만들어졌는지 규명이 안 된 채 방치되고, 매몰되고, 허물어지고 있는 전쟁유적들이 많다. 전쟁유적은 전쟁의 실상과 일본의 식민지배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근현대의 전쟁은 총력전인 만큼 이를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 실상에 접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쟁유적지들의 구조·구축방법·기능 등을 파악한 후에 그 실태와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여, 검증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한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기초적인 사적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군 전략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일본군의 제주도 정책의 현대사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문헌이 부족하여 일본 방위청전사실이나, 국회도서관 등 일본 측의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 제주도는 군수물자의 수송통로, 제주도의 비행기지 사수, 소련의 참전에 대비하여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였고, 이에 해군과 육군 모두에 의해 1944년 후반부터 제주도 전역에 요새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일본군이 전쟁준비와 관련된 시기적 전개·시설의 개요에 관해서는 송악산 및 셋알오름과 산이수동 지역, 송악산 동측 해안에 해군 특공기지, 셋알오름 정상에 고각포 진지(4개소), 셋알오름지하의 지하소개 시설, 어승생악의 토치카 유적과 지하의 진지동굴, 교래리 부근의 진지 동굴, 제주도 전역의 해안의 일정한 거리(약 8Km~10Km)에 위치한 환상형의 진지동굴, 성산 일출봉 해안과 서귀포 삼매봉 해안, 고산 수월봉 해안, 함덕 서우봉 해안 등의 해군 특공기지, 제주 시 사라봉 및 별도봉 해안의 미군 방어 진지 동굴 등을 상당히 해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인 일제 군사시설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국내의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알드르 해군항공기지를 비롯한 당시 군사시설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실태파악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전적지 조사는 전적지 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아

닌 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현지 확인과 실측에 머무르고 있었다. 해당 군사시설이 무슨 용도로 축조되었으며, 언제, 누구에 의해 시설되었는가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였다.

# 목 차

I. 서론 .....	1
I.1 연구목적 .....	1
I.2 연구배경 .....	1
I.3 연구방법 .....	2
I.4 선행연구의 특징과 본 논문의 의의 .....	3
II. 제주도 일본군 진지의 실태 .....	6
II.1 역사적 배경 .....	6
II.2 진지 현황 .....	6
III.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개시와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	8
III.1 전쟁 중반까지의 상황과 제주도 .....	8
III.2 전황의 악화와 제주도의 군사적 위상 .....	10
III.3 본토 결전 구상과 결7호 작전 .....	16
IV. 패전 직전의 제주도의 상황 .....	30
IV.1 방어 전략의 추진과 병력배치 상황 .....	30
IV.2 내륙 결전의 선택 .....	37
IV.3 패전시 제주도의 부대배치와 진지 상황 .....	41
V. 제주도에 구축된 군사기지와 그 전략 .....	44
V.1 해군의 제주 결전 준비 .....	44
V.2 육군의 군사기지 구축 .....	50
V.3 진지구축과 조선인의 동원 피해 .....	54
VI. 결론 .....	61
참고문헌 .....	64
<국내문헌> .....	64
<일본문헌> .....	64

## I. 서론

### I.1 연구목적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말부터 1945년 패전 직전까지 일본군이 제주도에서 수행한 진지 구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기 일본 군부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 현대사 구상 및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의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 지역의 일본군 진지 구축에 관한 문제는 전후의 한국사, 일본사,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전개와 맞물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및 연구조차 학술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향토학자나,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가끔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할 따름이었다. 먼저 제주도 향토 지식인 내지는 연구소가 진지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던 현지인들의 경험담 내지는 전언 등을 수집하였는데, 이 내용이 도내 각 신문 및 방송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개되었다. 그리고 때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 연구자들이 현지답사를 한 이후 이를 서적으로 발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향토사학자에 의한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1차 사료 내지는 자료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경험담에 의한 상당히 주관적인 것들이 많으며, 실제 상황과는 관련 없는,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 실제 상황과 관련이 없는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언급들이 많았으며, 오류 또한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인에 의한 연구도 우선 정확한 사료에 입각한 연구라기보다는 단기간에 걸친 그들의 제주도 방문기의 하나로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현지인들의 잘못된 안내나 이해를 토대로 한 것들이 적지 않으므로 이 역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기초적인 사적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군의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리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 및 일본군의 제주도 정책이 한국과 일본의 현대사에서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 I.2 연구배경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제주도에 수많은 군인 및 강제징용자들을 끌

어들여,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44년 10월부터 45년 종전 시까지)에 수많은 군사시설들을 구축했다. 이것은 일본군 수뇌부가 제주도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상정하여, 오키나와(沖繩)처럼 본토로 좁혀오는 미군 및 연합군의 발걸음을 늦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의 진지는 모슬포 알드르 해군항공기지의 엄체호를 비롯하여 많은 시설들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으나 이것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많은 시설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파괴되거나 자연붕괴해갈 것이다. 제주도는 토질이 화산토가 대부분으로 해방 후 60여년이 지남에 따라 중산간 오름에 파여진 대부분의 진지동굴들은 지반약화로 매몰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일본군 진지의 전규모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중요한 것에 관해서는 보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모슬포 송악산 및 알드르 항공기지 등 진지의 보존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송악산해안의 특공용 동굴에 관광객이 관람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특공용 동굴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여행안내원이 없고, 안내원마다 내용도 다르다. 더군다나 해안동굴 입구길목에는 일제의 군사유적지라는 안내보다 모 방송국 TV드라마 촬영장소라는 안내간판이 더 크게 안내되고 있다. 또 알드르 항공기지의 부속시설인 엄체호 한 곳에는 문화재청에서 등록 문화재라는 원형의 표시를 붙여 놓았다. 여기에는 건립연도가 1937년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얼마나 진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각지에는 아직도 왜 만들어졌는지 규명이 안 된 채 방치되고, 매몰되고, 허물어지고 있는 전쟁유적들이 많다. 전쟁유적은 「전쟁의 실상」과 일본의 식민지배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근현대의 전쟁은 총력전인 만큼 이를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 실상에 접근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요새를 보면, 그 구조·구축방법·기능을 파악한 후에 그 실태(역사적 사실)를 정리하여, 검증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 **I.3 연구방법**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체계적인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존의 연구 내지는 조사보고서의 검토를 통해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본 동경에 소재한 방위성 방위연구소(防衛廳防衛研究所) 등에서 당시 1차 사료와 아직까지 공개된 바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본군 진지구축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I.4 선행연구의 특징과 본 논문의 의의

일제말기 제주도의 진지에 관계된 선행 연구는 일제말기 일본군의 동향에 관한 연구와 제주도의 진지에 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진지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자료집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적들은 진지에 대한 연구서라기보다는 너무 기본적이고, 원론 수준의 언급을 하고 있거나, 진지를 열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열거되고 있는 진지에 대한 내용 또한 오류가 적지 않다. 일본군 진지 관련 연구를 시작하면서 도내의 많은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 사실에 접근된다고 판단되는 향토사학자들과 기관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성찬 씨는 4·3관련 소설가이자 일제의 흔적을 직접 발로 뛰면서 연구해 사 진집 등을 발간한 향토사학자이다. 그는 현지 주민들로부터의 증언에 의한 사실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기록한 진지 사진집 등 다양한 진지 관련 자료집을 집필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시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대한 서술이 필자가 분석한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방 후 오랜 시일이 흐름에 따라 증언자의 착오가 발생했거나, 전언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토 사학자 김찬흡 씨는 제주도사 중 일제강점기 관련부분에 대해 집필하였고, 도내 일간지에도 강점기 관련 기고를 많이 해왔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군개요사』나 『조선중전의 기록』 등과 같은 서적의 내용을 답습하거나 그대로 전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연구기관으로는 4·3연구소와 제주동굴연구소가 대표적이다. 4·3연구소의 경우는 기존의 개인적 연구보다는 진전된 일본 사료 및 미국의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진일보한 연구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이해(일본군 수뇌부의 자료 발굴 미흡으로 인한)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선행연구와 큰 차이

를 볼 수 없다.

제주동굴연구소는 도내 자연동굴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연구를 시작하여 진지관련 발표 등 가장 왕성한 연구를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보다 나은 점은 실제 현장 조사를 토대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4·3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제주주둔 일본군 수뇌부의 전략과 관련된 문헌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진지 규모조사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의 진지 관련 연구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를 의욕적으로 지속하고 있어 향후 연구 성과의 진전이 기대된다.

이상 제주도의 진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제주도내 연구기관이나 향토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연구와 일본 군부의 상황인식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왜 당시 일본군 수뇌부가 일본본토가 아닌 제주도에 수많은 진지를 구축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군부의 사료에 기초하여 당시 일본군 진지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있다.

일제말기 일본군의 동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신주백의 연구가 있다.<sup>1)</sup> 그는 제17방면군의 편제변화와 전쟁지도부의 구성문제 및 병사노무동원문제를 중심으로 일본 군부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1945년 일본군의 동향을 한반도라는 하나의 정치공간에서 임무가 다른 두개의 작전부대가 공존하는 가운데大本營(大本營), 관동군, 제17방면군(조선총독부) 간에 전쟁지도부 구성과 지휘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합의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조선군의 주 임무가 대소작전에서 대미작전으로 변경되고 제17방면군은大本營(大本營)의 병비계획에 따라 전력증강과 대규모 병사노무동원을 실시하여 제주도과 남부지방에서의 전쟁준비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의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본군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일본군의 전력 등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인 정보를 주고 있으나, 일본군의 구체적인 편제와 배치, 특히 제주도지역에서의 일본군의 배치와 편제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정보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진지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제주도의 진

---

1)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편제와 병사노무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181-210.

지와 일본군의 역할 변화의 관계에 대한 고찰도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일본군의 전략변화 속에서 제주도의 주둔군 편제의 변화가 지닌 의미를 고찰하고 진지구축이 이러한 전략 및 편제상의 변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일본군 진지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 II. 제주도 일본군 진지의 실태

### II.1 역사적 배경

일본제국주의는 메이지 유신 이후 자국 내의 정치적 상황 및 국제정세추이를 이용하여 대륙진출의 야욕을 품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침략을 시작하였다.

그 준비 작업으로 1926년부터 대륙 침략 전초기지로 모슬포에 일본해군 항공기지를 건설하고 중국본토 폭격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1943년부터는 미연합군의 대대적인 반격에 밀리게 되면서, 일본은 전세가 급격히 불리해지고 자국본토방위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주도를 본토방위의 하나의 거점으로 주목하고 도민을 징발하여 육군 비행장으로 제주 서비행장과 삼양-신촌간의 동비행장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1944년 11월 미군이 B29 폭격기를 이용하여 일본 본토를 공습한 이래 일본군은 1945년 2월부터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포 등에 해군 특공기지를 구축하여 미군 상륙에 대비하는 군사시설을 구축하기 시작 하였다. 1944년 말이 되면 일본 해군이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고, 1945년 3월에는 이오지마(硫黃島)와 오키나와(沖繩)가 미군에 점령당하였다.

그 후 4월부터는 관동군 제111사단과 제121사단을 제주도로 이동시키고, 일본 내 독립혼성 제108여단 등을 포함시켜 제58군사령부를 새로이 편성하는 등 제주도 전역의 요새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8월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일제의 지배 역사는 막을 내렸지만, 패전 당시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은 총 7만 5천여 명으로 당시 제주도 인구 23만 여명의 약 30%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였다.

그중 한국인 군인 및 군속 1만 7천여 명을 제외한 일본군 5만 5천여 명이 1945년 10월부터 11월 중순에 걸쳐 일본 큐슈 사세보 항으로 귀국하면서 제주도에 서 일본군의 발자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 II.2 진지 현황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일본군 진지는 제주도 전역에 수도 없이 산재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래 지역을 중심으로 대표적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송악산 및 첫알오름과 산이수동 지역은 제주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전쟁유적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속칭 알뜨르 비행장(일본 해군항공기지)의 활주로와 엄체호를 비롯한 비행장의 부속시설 유적이 있으며, 송악산 북측 사면 해발 60여m 부근에는 게릴라전용 진지 동굴이 있다.

그리고 송악산 동측 해안에 해군 특공기지(海軍 特功基地), 첫알오름 정상에 고각포 진지(高角砲 陣地 - 4개소), 첫알오름 지하에는 지상의 비행기지 부속시설을 연합군의 공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지하소개 시설(지하호) 이 있다.

둘째, 어승생악에는 제주도주둔 일본군을 총지휘했던 제58군사령부가 주둔해 있던 곳으로 정상에는 아직도 제주북부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토치카의 유적과 지하의 진지동굴(현재 입구가 4개소 있음)로 연결되어 있던 통로의 흔적이 남아 있다.

셋째, 제주서부의 중산간지역에 있는 다래오름, 왕이메, 당오름, 도너리오름에는 진지동굴을 비롯한 일본군 육군부대가 주둔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 동부지역의 중산간인 송당(서거문오름, 거슨새미오름, 민오름, 안돌오름)을 비롯한 교래리 부근의 오름에도 진지 동굴들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제주도 전역의 해안부근의 오름과 해안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약 8Km~10Km)에 위치해 있는 오름들에는 환상형의 띠 형태로 진지동굴이 발견되기도 한다.

넷째, 성산 일출봉 해안과 서귀포 삼매봉 해안, 고산 수월봉 해안, 함덕 서우봉 해안에도 해군 특공기지 건설시 굴착했던 진지 동굴이 적게는 10여개에서 많게는 20여개가 남아 있다.

다섯째, 제주시 사라봉 및 별도봉 해안에도 해안을 통해 상륙하는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 동굴이 남아 있다.

또한 현재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뜨르 비행장, 삼양-신촌간의 진드르 비행장 및 대한항공 비행훈련원 자리의 카미카제 특공용 비밀 비행장등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육군이 건설했던 비행장등의 유적이 있다.

이러한 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의 군사전략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 Ⅲ. 아시아 · 태평양전쟁의 개시와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 Ⅲ.1 전쟁 중반까지의 상황과 제주도

##### Ⅲ.1.1 제주도에 대한 기본인식

20세기 초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이후, 제주도는 평범한, 본토와는 떨어진 평화로운 섬이었다. 당시 일본군이 갖고 있던 제주도 인식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한 섬으로서 동서 약 60km, 남북 약 40km로 일본의 카가와현(香川縣)의 넓이와 비슷하다. 인구는 약 23만,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시 이래 가장 평화스런 땅이었다. 이 섬은 화산암으로 형성, 지질상으로는 고원지대·삼립지대·농경지대 및 해안지대로 구분된다. 해안선은 단애·암초지대로 되어 있어 계단사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대의 정면상륙은 제한을 받고 소부대로는 어느 곳이나 상륙이 가능하다. 모슬포·한림·성산포 정면에는 양호한 정박지가 있다.

한편 교통 통신시설은 극히 빈약해서 해안선을 따라 환상의 자동차 도로 및 통신시설 2회선이 있을 따름이고, 그 이외에는 경중차 또는 우마차 도로이며 기갑부대는 해안지대의 도로 이외에서는 행동하기 어렵다. 농경 및 초원지대는 행동이 자유로워 평지방면에는 비행장으로서의 적지는 다수 있다. 우량은 비교적 많고 지하로 침투된다.

하천 또는 용천수 몇 개소가 있으나 그 이외로는 급수가 극히 어려워 부락 이외는 반수가 필요한 무수지대여서 작전에 악영향을 미칠 곳이 많다. 식량 면에서 미곡은 수입하고 잡곡은 수출하게 되었으며 감자(甘薯)류와 해산물은 풍부하며 목축업이 성행하여 자활이 가능하다. 행정조직은 도청(島廳)이 있어 도사(島司)가 경찰서장을 겸임, 도내의 8개소를 통치하며 전라남도 도지사에 소속되어 있다.<sup>2)</sup>”

##### Ⅲ.1.2 제주도의 군사적 관할상황

제주도는 군사적으로 울릉도와 함께 일본 해군휘하의 사세보진수부(佐世保鎮守府)<sup>3)</sup>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1916년 사세보진수부예하에서,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경

2) 宮田 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156~157쪽.

3) 鎮守府는 海軍의 지방관청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전시에 군항인 요코스카, 쿠레, 사세

비와 작전을 담당하는 진해요항부(鎭海要港部)소속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초중반 시점까지 주둔 병력은 동부지역의 우도와 서부지역의 마라도에 경비병 몇 명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일본이 중국본토에 만주국을 세우고, 유조구(柳條溝)사건을 일으키면서 중일 15년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제주도는 일본군에 의해 전장화되기 시작하였다.

1931년 3월 일본해군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제주도의 서남부 대정읍 송악산 부근의 평지 약 60여만㎡에 제주도항공기지(濟州島航空基地)<sup>4)</sup> 건설을 시작하였다. 공사는 약 5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활주로는 1,400m×70m 크기의 1개의 기본적인 시설만을 갖춘 항공기지였다.

그러다 제주도의 항공기지가 일약 각광을 받게 된 것은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이 일어난 이후였다.

같은 해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총37회 걸쳐서 중국의 남경을 비롯한 중소도시 폭격을 위해 출격한 기록이 남아있다.

1941년 11월 해군성의 군비개편에 의해 사세보진수부로부터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일본해군을 총괄하는 진해경비부가 독립하게 되고, 제주도는 진해경비부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조선군도 여수요새사령부(麗水要塞司令部)로 하여금 제주도의 방위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직접 병비를 파견한 것은 아니고,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부대를 파견했다. 일본군 수뇌부인 육군참모본부에서도, 당시의 정황상 우리나라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군사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아, 후방 물자조달을 위한 병참기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4년 봄부터는 미연합군 잠수함이 우리나라 남해안 및 일본 근해에 출몰하기 시작했고, 본토결전을 위한 군수물자가 긴요했던 일본에게 남방물자 및 인도차이나 대륙으로부터의 결전 물자공급은 시간이 흐를수록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종단철도를 통한 물자수송을 위해, 특히 대한해협을 안전한 항로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제주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

보, 마이즈루에 두고 있었다. 佐世保鎭守府는 큐슈, 오키나와(沖繩), 조선, 타이완 등을 관할하고 있었다.

4) 당시 일본육군에서는 비행장이라고 했지만, 해군에서는 항공기지라고, 용어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

## Ⅲ.2 전황의 악화와 제주도의 군사적 위상

### Ⅲ.2.1 일본군 전략의 변화

일본 점령 당시의 군사적 상황을 보면, 한반도에는 1919년에 나남(羅南) 제19사단, 다음해인 1920년에 경성(京城) 제20사단이 편성되어 단 2개 사단만의 소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가, 1943년에 평양(平壤) 제30사단이 신설 편제되었다. 거의 모든 병력은 소련과의 충돌에 대비해서 한반도의 북방에 중점이 두어졌다.

한편, 그것마저도 1944년부터 남태평양 상에서 미연합군의 반격 총공세에 밀리는 전황에 따라, 남방으로 파견되어 한반도에는 루스사단<sup>5)</sup>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1944년 10월 하순,大本營(大本營)은 레이테결전의 성패가 이후의 전쟁지도에 중대한 전기를 가를 것이며, 앞으로 병비는 점점 증대되어 갈 것으로 판단하여 신작전계획대강(新作戰計劃大綱)의 연구와 더불어 병비의 계획책정을 서둘러서 본토 및 한반도의 방위강화를 도모했다.

1944년 7월 사이판 섬이 미연합군에 점령당하게 된다. 중국의 성도기지(成都基地)와는 달리, 홋카이도(北海島)를 제외한 일본본토가 B-29에 의한 공습가능지역에 들어가게 되어, 미연합군의 일본본토 상륙에 대한 경계·경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군 수뇌부는 미연합군의 본토 기습상륙에 대비하고자 연안축성을 개시함과 동시에 군의 중요시설에 대한 지하소개가 계획되고, 마쓰시로(松代)의大本營(大本營) 및 정부기관의 지하화를 비롯하여, 일본 국내의 거대지하호가 계획되고 건설이 시작되었다.

제주도 내의 거대 군사시설들은 1944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축성되기 시작했음을 방위청(防衛廳)도서실의 자료에서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44년 10월 미연합군이 필리핀 루손 섬으로 상륙을 시도하여 필리핀에서의 격렬한 전투 속에 일본의 육·해군 병력 모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본토를 향한 미연합군의 공세가 임박해 옴을 인식한大本營(大本營)의 군 수뇌부는 미연합군 상륙예정지를 상정하여 새로운 본토 사수 작전구상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은 미연합군이 인도차이나반도를 따라서 북상하여 큐슈(九州) 북부나, 남

---

5) 사단의 주력 병력이 주둔지 이외의 타 지역으로 파견됨으로 인하여, 부대 내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병력만 남아 있는 부대를 지칭한다.

선지구(南鮮地區)로 기습 상륙하는 것을 예상하여, 일본본토 방위상 제주도의 정·전략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 Ⅲ.2.2 제주도의 군사적 위상 변화

제주도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가 가까운 1944년 10월까지 병력이 고작 20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경비병(우도, 마라도)만을 주둔시킬 정도로, 일본군 수뇌부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한 전쟁 무풍지대였다.

이렇듯 전쟁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주도의 위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44년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연합군 잠수함이 제주부근 해역 및 남해안 연안에 자주 출몰하고, 또한 잠수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이의 방위를 위해 연안감시를 한층 강화해야 했고, 기습상륙이나 연안포격 등의 교란작전 등에도 대비해야 했다.

조선군은 1943년 이후 남방으로 4개 사단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루스사단 3개(19, 20, 30사단)만 남아, 남선(南鮮), 제주도 방면의 연안방비는 전무한 상태였다.

1944년에 제주도, 목포, 군산 부근을 중점으로 하는 연안방어 축성과 연안주정 기지의 설정에 착수했지만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조선군은 조선총독부와 연계하여, 1944년 6월 경성사단으로부터 보병 1개 중대, 기관총 1개 소대, 마산 중포병연대와 보충대로부터 야포 1개소대등 80여명의 연안방어대를 편성하여 제주로 파견하였고, 부족인원은 당시 제주에 파견되어 있던 특설경비 제405중대의 대명요원으로 충원하여, 한반도의 서남해안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sup>6)</sup>

그러던 제주도가 불과 10여 개월 뒤인 종전 시점에 7만 5천여 명(추산)이라는 거대한 병력이 주둔하는 전장이 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패전이 가까워 올수록 선박의 소모가 증가되어 대잠수함 경계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한반도 근해에서의 일본의 대잠경계는 해군이 담당했는데, 경함정과 항공기로 그 주력은 진해에 주둔하고 있었다. 주로 관부연락선의 엄호가 해군의 임무이기는 하나 당시 남방과의 선박 항해, 대륙 접안항로를 설정을 위해 대해지(大海指) 제299호에 의해 새로 해상호위사령부(海上護衛司令部)를 창설하였으며, 한반도 및 일본

6) 宮田 節子, 전계서, 1989, 147쪽.

근해에서 대잠 경계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sup>7)</sup>

제주도의 방위 담당은 원래 해군중앙협정에 따라 해군이 담당하였으나, 남태평양 상에서 미연합군의 대반격으로 일본 함정은 거의 침몰되어 해군의 수비 병력은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육군에서는 여수요새사령관(麗水要塞司令官)으로 하여금 제주도의 방위를 담당하게 하였다.<sup>8)</sup>

1944년 12월 일본방위총사령부(日本防衛總司令部)에는 「미연합군의 제주도공략」을 상정, 제주도는 점차 전략상 요충지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 군부에서는 막료를 파견하여 제주도·목포·군산지구 등을 시찰하게 하고, 12월 말 방위총사령부로부터 연안진지 축성<sup>9)</sup>에 관한 지시가 내려졌다.

일본방위총사령부에서 지시된 축성 계획은 다음 다섯 가지였다.

“첫째, 한반도 남해안지구에 있어서 선박·항공기의 정박지를 엄호함과 동시에 연안 경비를 강화하고 주정기지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목포·여수를 포함한 세 지역 사이에서 선박의 항해와 정박지를 엄호할 임시포대를 설치한다.

셋째, 임시포대의 엄호와 미연합군의 상륙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축성한다.

제 주 도 - 보병 5개 대대분

목포 부근 - 보병 2개 대대분

군산 부근 - 보병 1개 대대분

넷째, 장차 소형주정에 의한 연안 항로대를 설정할 목적으로 목포·여수·제주도의 지역에 주정기지를 설치한다.

다섯째, 이상의 시설은 1945년 3월말까지 개성하는 것으로 해서 골간중의 골간진지로 해야 한다.”

일본군은 상기의 지시에 의해 1945년 초부터 현지 경찰에 들어갔다. 그리고, 축

7)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本土方面海軍作戰』朝雲新聞社, 1940, 207쪽.

8) 宮田 節子, 전게서, 1989, 149~150쪽.

9) 築城이란 군사용어로서 요새·보루·포대·참호 등의 구조물을 총칭하는 말이다.

성은 장래 병력 파견을 고려하여, 제주도는 평양사단이, 목포 및 군산지구는 경성사단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밖에 방위사령부로부터 배속된 제3, 제10공병대는 평양사단에 협력을 하고, 제주도특설경비공병 제408대대를 소집, 축성에 협력토록 하였다.<sup>10)</sup>

1945년 1월 필리핀 루손섬의 링가엔만에 미연합군의 주력부대가 일제히 공세를 취하자 일본군은 전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계속 퇴패하여 필리핀에서는 완전 참패를 당했다. 같은 해 3월 미연합군은 강력한 기동부대를 투입, 일본의 이오지마(硫黃島)에 상륙하게 되자, 미연합군의 일본 본토상륙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앞으로 미연합군의 진격방향은 오가사와라열도(小笠原列島)를 거쳐 본토의 관동 평야방면(關東平野方面)에 상륙하든가, 또는 대만·오키나와(沖繩)열도·중국대륙 연안, 아니면 일본의 큐슈방면으로 상륙할 것이 예상되었다.

만일 큐슈방면으로 돌진해 온다면, 일본 본토와 대륙을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 제주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일본군에게는 사활에 직접적인 열쇠를 쥐는 문제였다.<sup>11)</sup> 따라서 남선지구, 특히 제주도의 군사적 장악은 일본군 수뇌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런데 유럽에서 대전이 종결되어감에 따라 소련군이 시베리아로 이동하여 병력증강이 1945년 2월 이후 눈에 띄게 현저해졌다. 이로써 일본은 대소작전도 경시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일본군은 대미·대소 양면에서의 작전준비를 하게 되어 한반도는 제2선의 병참적인 존재로부터 제1선의 전투기지로 돌변하기에 이르렀다.

### Ⅲ.2.3 제주도 군사기지화의 개시

미연합군에서 지금까지 개발했던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B-29의 출격기지가 남태평양상의 기지로부터 중국대륙의 성도(成都), 중경(重慶)부근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여러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그렇게 될 경우 B-29가 제주도 상공을 통과하게 되고 간사이(關西)지방 이서지역이 공습 가능권이 되는 것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제주도 항공방위상의 중요성도 증대되었다.

10) 宮田 節子, 전계서, 210~212쪽.

11) 상계서, 154쪽.

또한 B-29는 당시까지 개발된 항공기보다 뛰어난 항속거리, 자동항법장치, 전파  
병기 등을 탑재하여 야간폭격 또한 가능해 짐에 따라, 육군수뇌부는 일본본토에 대  
한 미연합군의 폭격이 1944년 중기부터 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sup>12)</sup>

일본군이 모슬포에 레이더기지를 설치한 것은 이즈음의 일이었다.

전과정계기(電波警戒機) 갑1기, 을2기를 배치하고, 제6, 제14 대공무선대(對空無  
線隊) 120명을 파견했던 것이다.<sup>13)</sup>

육군은 1942년 1월 당시 제주읍 정드르(현 제주국제공항)에 총 면적 40여만 평  
규모의 비행장 건설을 시작하여 1944년 5월에 준공했다. 비행장 건설공사 중 기술  
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는지 1943년 8월에 특설경비 제405중대가 일본인 재향군인  
으로 조직되어 경비에 투입되기도 했다.<sup>14)</sup>

제주비행장이 1944년 5월 준공됨으로써 대형기의 이착륙도 가능해졌다. 기타큐  
슈(北九州)의 폭격에 따라 서부군(西部軍)으로부터 전투정찰 각1편대, 비행장중대 1  
개, 기타 근무부대를 배치하고 조선군으로부터 경비를 위해 연안방어대(약80명)을  
파견 상주시켰다.

특설경비(特設警備) 제405중대는 상치원(常置員) 장교 이하 3명, 대명자(待命者)  
약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요원은 전도에 산재해 있어서 소집하는데 약 반  
나절이나 소요되었고 경비력이 지극히 미약했다.

특설경비 제408대대는 대명자가 약 5백 명이 되며 약 1/3은 한반도에서 충원되  
었다. 제주도내의 경계대는 모슬포에 서부군으로부터 파견되어온 경계기 을2기, 고  
사기관포 4문, 조선군으로부터 파견되어온 경계기 갑1기가 배치되어 양자 모두 약  
120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4년 7월24일의 「捷号 航空作戰에 관한 陸·  
海軍 中央協定」에서 해군 제주도항공기지는 「해군이 주로 사용하고, 육군이 공용  
하는 것」으로 되었다.<sup>15)</sup>

그리고 모슬포 해군항공기지는 중일전쟁(中日戰爭) 당시 도양(渡洋) 폭격에 이  
용된 비행장으로서 그 후 오무라해군항공대(大村海軍航空隊) 소속 연습비행대와 진  
해경비부 소속의 대잠용(對潛用) 항공기 몇 대가 상주하고 있었고, 또 고각포(高角

12)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本土航空作戰』 朝雲新聞社, 1974, 285~289쪽.

13) 宮田 節子, 전계서, 158쪽.

14) 상계서, 157쪽.

15)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大本營(大本營)陸軍部<10>-昭和二十年八月まで-』, 朝雲新聞社, 1940, 173쪽.

砲) 4문, 고사기관포(高射機關砲) 6문을 갖추고 있는 것 이외에 지상 경비 병력은 전무한 상태였다.

해군경비대는 제주도 동북쪽에 있는 우도와 서남쪽에 있는 마라도에 약간 명으로 구성된 방비대가 상주하고 있었다.<sup>16)</sup>

전황의 변화와 함께 제주도 방어의 주도권은 차츰 육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주도의 총병력은 겨우 천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동시에 군사배치의 중점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었고, 해상과 공중에 대한 방어를 중심으로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44년 10월 말부터 B-29의 일본본토 공습 주력부대는 사이판, 테니안, 괌의 마리아나기지에서 출격이 이루어져, 제주도주변 상공에서 B-29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는 아직 대규모적인 지상전이 상정되었던 것이 아니다.

제주도에서 당시 일본군이 축조했던 시설 중 육군의 경우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드르 비행장을 비롯한 어승생악의 제58군사령부 요새를 비롯한, 게릴라식 지구전을 전제로 중산간 각지의 오름을 낀 분지주변에 축조했던 진지동굴 등으로 1945년 6월말 당시 계획의 60~70% 진척되고 있고, 동굴은 32,000m 정도 축조되었다고 보고한 자료가 방위청 방위연구소자료에 남아있다.

중산간 오름에 축조한 많은 동굴을 진지동굴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동굴들은 폭이 약 1m, 높이가 약 1.7m 정도로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 동굴의 용도는 주간에 진지동굴 내에 은신해 폭격을 견디다가, 야간에 동굴 밖으로 나와 전투를 하는 게릴라식 전투용 동굴이라 할 수 있다. 본토상륙을 위하여 진군하는 미연합군의 진로를 방해하고, 본토로 향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제주에서의 진지구축이 1945년 7월말까지 완성하도록大本營(大本營)로부터 지시가 있었으므로, 1945년 8월 15일 종전 당시까지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육군의 경우 전도에 걸쳐 부대가 주둔해 있던 부근 오름들에 진지동굴을 축조하였는데, 그 길이는 수십K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경우 종전 당시 미연합군에 넘겨준 자료인 『진해경비부 인도목록(鎭海警備府 引渡目錄) 3/3』을 통해 그 시설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제주도 해군항공기

---

16) 宮田 節子, 전계서, 157~158쪽.

지(모슬포 알드르 소재) 및 부속시설, 성산 일출봉, 함덕 서우봉, 서귀포 삼매봉, 대정 송악산, 고산 수월봉 등의 특공기지 5개소를 비롯하여, 셋알오름의 고각포진지, 지하 소개시설 등을 모두 합해서 수도(隧道-동굴형식)가 57,000m<sup>2</sup>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시의 7만 5천여 명의 군인에 이 정도의 군사시설물을 축조한 상황으로 봐서, 본토로 향하는 미연합군의 발걸음을 단 한 시간이라도 저지시키기 위하여 일본군은 갖가지 수단을 강구했던 셈이다.

### Ⅲ.3. 본토결전 구상과 결7호 작전

#### Ⅲ.3.1 옥쇄와 특공작전의 등장

##### Ⅲ.3.1.1 「옥쇄(玉碎)」 전략의 형성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옥쇄전은 전략의 실패에 의해 일본군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이한 전술양태였다. 일본군은 제해권·제공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점(고도 혹은 국지)인 채 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살아남아서 포로의 치욕을 받지 않는다.”고 교육 받은 수비대는 고립무원 속에서 미연합군의 압도적인 물량공세와 화력 앞에서 전멸, 옥쇄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옥쇄전이 된 알류산열도의 앗츠섬은 당초에는 일본육군의 점령구상에는 없었다. 그러던 것이 해군의 미드웨이작전으로 급부상하여, 1942년 6월 7일부터 8일에 걸쳐서 키스카섬과 함께 무혈점령하게 되자 욕심이 생겼고, 미드웨이작전 실패 후에도 점령을 계속하여 최후는 보급이 지속되지 못하고 전멸했다. 옥쇄전은 처음부터 오산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남태평양상의 전투에서 일본해군이 치른 희생은 심각했다. 항공기손실 약9백기, 탑승원 사망 2천300여명, 전함침몰 30여척, 거기다 일본해군이 전전부터 저장하고 있던 6백만Ton의 중유가 백만Ton으로 격감했다.

전황은 개전 1년 반이 지나자 크게 변화해서 일본의 전력은 소진 일변도였다. 남태평양 방면의 전투에 온힘을 쏟고 있던 해군에게 북방작전에 손을 댈 여유가 없었다.

1943년부터 시작된 미연합군의 본격적인 반격은 맥아더 대장의 남서태평양방면군, 윌리엄 할제 대장의 남태평양군, 체스터 니미츠 대장의 태평양방면군에 의한 이른바 「카트호일(車輪)작전」과 더불어 중부 솔로몬군도를 시작으로 북상해 갔다.

육쇄의 배경에는 일본 건군 이래 철저한 진충보국(盡忠報國)사상이 있었다. 군주에 충성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일본의 무사도 정신이다. 일본군에게 항복은 없고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정신은 여기에서 발원하였고,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군의 기본정신은 이렇게 형성되었고, 제네바조약에 국제적으로 포로 보호가 약속되었더라도, 포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움(羞恥)라고 교육받았다.

이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앞서, 당시의 도조(東條英機) 육상(陸相-후에 수상)이 전군에 시달한 「전진훈(戰陣訓)」이었다. 여기에는 “살아서 포로의 치욕을 받는 것”을 경고하고, “포로가 되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를 권고하고, “死의 哲學”에 일본군을 얹어 댔다.

여기에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동조했고, 전진훈은 학교교육에도 적용되어 사이관섬, 테니안섬, 오키나와(沖繩) 등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자결하는 요인이 되었다. 동시에 국민에게는 “신주불멸(神州不滅)”을 철저히 가르쳐서 일본은 절대로 지지 않는 나라라는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 Ⅲ.3.1.2 특공작전의 전개

전쟁지도가 주무인 군령부에서는 1943년 중반부터 특공병기의 개발과 실전배치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었다. 여기서 ‘특공대(特攻隊)’ 추진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44년 4월 9일 해군성(海軍省)에서 다음과 같은 병기 제조를 결정하였다. 특공작전에 필요한 병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병기(潛水艦攻擊用 潛水艦)
- ② 병기(高高度 로켓트)
- ③ 병기(S金物,假潛魚雷艇)
- ④ 병기(후일 震洋으로 명칭 변경)
- ⑤ 병기(自走爆雷)
- ⑥ 병기(후일 回天으로 명칭 변경)
- ⑦ 병기(電探關係)
- ⑧ 병기(電探防止關係)
- ⑨ 병기(후일 震海)
- ⑩ 병기 櫻花

오카(櫻花)는 8월16일 해군성으로부터 요코스카(橫須賀)의 해군공기창(海軍工技廠)으로 시제작(始製作) 명령이 내려졌다.

9월 13일 오모리(大森仙太郎) 중장을 부장으로 하는 ‘해군특공부’가 발족되어 당시까지 임시명칭이었던 특공병기에 정식명칭을 부여했다. 위의 ④병기가 신요(震洋)<sup>17)</sup>, ⑥병기가 카이텐(回天)<sup>18)</sup>, ⑩병기가 오카(櫻花)<sup>19)</sup>가 되었다.

육군의 특공은 해군에 자극받아서 1944년 7월 99雙輕, 4式重을 특공용으로 개조를 개시하여 10월 4일에는 특공대를 편성하기 시작했다. 육군항공총감부(陸軍航空總監部)는 호코타(銚田)교도비행사단(教導飛行師團, 이바라키현[茨城縣] 소재)에 육탄공격대(体当たり隊)의 편성준비 명령을 내렸다. 육군은 특수한 특공병기 마저 만들 수 없었는데 항공기 자체를 개조해서 특공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육군 최초의 특공대인 만다타이(万葉隊)의 장행식(壯行式-출발을 축하하는 의식)은 10월 26일에 행해졌다.

특공이 일상화된 것은 필리핀에서 카미카제 특공대(神風特攻隊)가 예상외의 전과를 올린 후부터이다. 전국(戰局)에 끼친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미연합군병사들에게 공포심을 가져다 준 것만은 확실하다.

1945년 4월1일 오키나와(沖繩)에 미연합군이 상륙하자 특공은 점점 일상적이 된다. 마침내 연습기까지 폭탄을 싣고 오키나와로 향했다. 일본의 항공기는 움직임이 느렸기 때문에 미연합군의 그라만 전투기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공해도 전술적 의미가 없는 단기(單機 - 1式陸攻 1機와 櫻花 1機) 출격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카미카제 특공개시로부터 종전까지 299일 사이에 해군 2,524명, 육군 1,386명의 젊은 생명이 특공대원으로 죽어갔다.

17) 震洋艇의 제원은 전장 5.1m, 중량 1.4t, 엔진 수 1(토요타자동차의 80마력 중고엔진), 속도 23노트(나중에 28노트), 장착폭약 250Kg, 탑승원 1명(진양 1형, 5형인 경우 탑승원 2명), 선체는 당시 철판이 모자란 것도 감안하고 선체를 가볍게 하기위해 베니어판으로 제작했다.(최초에 해군에서 특공병기로 개발했을 때는 ④정이었음)

18) 구축함이나 순양함에 장착된 초대형 어뢰(93식3형 어뢰-산소어뢰)를 개조한 것이다. 전장 14.7m, 직경1m, 배수량8Ton으로, 어뢰의 본체에 외통을 씌우고 산소탱크 사이에 탑승원실을 만들어 간단한 조선헌치(操船裝置)와 조정밸브, 습격용 잠망경을 달았다. 폭약은 1.5Ton, 최고시속55Km, 23Km의 항속력을 가졌다.

19) 해군이 개발한 세계유일의 항공특공병기이다. 기수에 대형의 철갑폭탄(徹甲爆彈)을 탑재하여 목표물 가까이에서 모기와 분리된 후 탑승원의 유도에 의해 화약 로켓을 작동시켜 활강하여 목표물에 육탄공격을 하는 병기였다.

### Ⅲ.3.2 본토결전(本土決戰)구상의 수립과 제주도

#### Ⅲ.3.2.1 축성계획의 전개

1945년을 전후하여 일본군 수뇌부에서 본토결전구상이 이루어졌고 본토결전 방책이 시달되었다. 미연합군 상륙에 대한 방어와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전 초기까지 군에서 연구하고 있었지만 전령이나 범령은 없었다.

1943년 11월 15일 「도서수비대 전투교령(島嶼守備隊 戰鬥教令)은 치열한 포공격(총격)을 상정하면서도 “군사배치의 중점을 직접 해안에 둔다.”라고 했다. 그러나 1944년 4월 배포된 「도서수비대 전투교령의 설명」에서 후퇴배치의 사상이 추가되었고, 1944년 8월 19일 지시된 「도서수비요령(島嶼守備要領)」은 “주진지대의 전선은 … 해안으로부터 적당히 후퇴해서 선정함을 허락한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1944년 10월 배포된 「상륙방어교령(上陸防禦教令)」은 “전반 상황 및 지형이 가능하다면 배치의 중점을 직접해안에 둔다.”고 하면서도, “현 전국에서 수비대는 배치의 중점을 해안으로부터 적당히 후퇴한 지점에 만든다.”라고 지시되고, 또한 유격전투가 중시되었다.

유격전투에 관해서 1945년 1월 15일 「국내유격전의 참고」가 참모차장 명의로 배포되었다. 여기에 3월이 되자 대상륙작전에 관한 통수의 참고서인 「국토축성실시요강(國土築城實施要綱)」이 배포되었다.

1944년 7월 이후 기존의 요새 이외에 본토연안축성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리하여大本營(大本營)는 축성본부장을 방위총사령관에게 협력하게 하였고 방위축성부(防衛築城部-관동군 축성부를 명칭 변경)를 편입시켰다.

1944년 7월 25일에는 「본토연안 축성실시요강(本土沿岸 築城實施要綱)」을 지시했다. 이 요강에 기초해서 서부군은 8월말부터 축성을 개시하였고, 동부군은 9월 상순부터 임시포대를 구축하고, 11월 하순부터는 일반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大本營(大本營)는 1945년 1월 20일의 신작전계획대강(新作戰計劃大綱)에 기초해서, 3월 16일 축성실시의 기준으로 「국토축성실시요강(國土築城實施要綱)」을 시달했다(大陸指綴). 이 요강은 연안방비병단의 축성, 공세병단의 축성, 내륙교통선의 축성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1945년 7월까지 모든 진지의 골간을 개축하고, 10월까지 완성하는 것을 축성진척의 기준으로 했다.

특히 축성이 각급 지휘관의 탁월한 고안창의와 부대의 진지하고 착실한 작업에

의해 종합적으로 건설되는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또한 내륙 교통선을 구축함에 있어서 국민의 힘을 빌리고, 동굴진지에 철저해야 하며, 자재, 노력, 기구의 부족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시멘트와 철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형을 활용하고, 비밀과 차폐에 힘쓸 것 등을 강조했다.<sup>20)</sup>

### Ⅲ.3.2.2 제주도의 병력 재배치

제주도에서는 1944년 11월에 제408특설경비공병대가 배치되어, 비행장 복구와 축성에 임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 병력은 약 930명이었는데, 1/3이 일본인, 1/3이 제주인, 1/3이 본토의 징용자로 이루어졌다.

12월에 방위총사령부의 막료가 동경에서 제주도로 출장을 와서 시찰한 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3개항의 지시가 내려진다.

- “① 해상교통보호 : 선박항행, 박지(泊地)를 원호해야하는 임시포대(제주, 모슬포)의 구축
- ② 연안방비 : 임시포대의 엄호, 상륙방어를 위한 보병 5개 대대규모의 축성
- ③ 주정기지(舟艇基地)의 설정 : 장래 소형주정에 의한 연안 항로대 설정 목적”

이는大本營(大本營)에서 제주도의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미연합군이 일본으로의 대륙으로부터 전쟁물자 수송항로에 대해 해상공격을 감행하거나, 제주도에 자신의 공격거점을 만들기 위해 상륙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21)</sup> 즉 본토결전 구상의 부상과 함께 제주도를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을 연계하는 지정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945년 2월 11일에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가 폐쇄되고, 시기적, 지리적으로 중요성의 커짐에 따라 작전을 담당하는 제17방면군사령부(第17方面軍司令部)와 조선군관구사령부(朝鮮軍管區司令部)로 분할된다.<sup>22)</sup> 제17방면군의 임무는 “침공해 오

20)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本土決戰準備<2>-九州の防衛-』朝雲新聞社, 1942, 96~97쪽.

21) 宮田 節子 전계서, 1989, 211쪽.

22)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大本營(大本營)陸軍部<10>-昭和二十年八月まで-』, 朝雲新

는 적을 섬멸해서 그 기도를 분쇄하고, 조선의 확보에 임한다.”는 것이었으며, 대소련 작전준비에 관해서는 관동군총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되었다.<sup>23)</sup>

4월 8일에는 방면군의 전투서열이 변경되어, 제58군(2개 사단과 1개 혼성 여단)과 4개 사단으로 구성된 병력이 되었지만 임무나 작전영역에는 변경이 없었다. 그러나 5월 30일 대소·대미 작전에 관한 임무가 관동군과 관련하여, 제17방면군은 한반도의 중남부로 진공하는 적을 격멸하는 것으로 되었고, 관동군이 한반도북부에서의 대미·대소작전은 관동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 명령은 제17방면군으로 하여금 대미작전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sup>24)</sup>

2월 6일의 대명에 의하면 조선에서 작전준비의 중점은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방면이었는데, 특히 제주도의 방위는 급무였다.

### Ⅲ.3.2.3 제주도의 축성 계획

제주도의 축성은 1945년 초두부터 루스 제30사단이 담당하고 있었다. 3월 10일에 편성된 제96사단이 4월 상순 제주도에 진주한데 이어서 4월 하순에는 제58군사령부가 진주했다. 만주에서 전용된 제111사단은 5월 상순 제주도에 상륙했다.

조선·큐슈방면을 시찰한 스기타(杉田一次, 大本營參謀) 대좌의 보고에 의하면 이즈음 제주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문화정도가 높다. 오사카와 교통왕래 (당시 여객선이 있었음)가 있고, 전차의 행동은 어디나 자유롭고, 급수는 불편하다. 제58군의 사명은 제주도 확보와 연합군의 비행장 설정을 방해하고, 중앙고지에 긴축한 배치를 채택하고 있다.<sup>25)</sup> 제96사단은 2/3는 40세, 장교의 평균연령은 48세이다. 제111사단은 야포 8문뿐으로, 천막과 반합이 없고, 화포와 분진포의 탄환과 대전차 자재가 없다. 해군의 특공진지는 동서남북의 끝부분<sup>26)</sup>에 있지만, 지도할 필요가 있다.”

聞社, 1975, 17쪽.

23)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滿洲·朝鮮·64 機密作戰日誌(乙綴)』- 昭和十九年十一月~二十年三月, 2月9日字 參謀總長 電文 第661号.

24)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상계서, 231~232쪽.

25) 해안선으로부터 후퇴 배치(약 8Km 내외의 거리에 있는 오름을 이용하여 진지 동굴군을 형성하였으며, 동부지역에서부터 서남부까지 환형의 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26) 성산 일출봉, 함덕 서우봉, 서귀포 삼매봉, 고산 수월봉, 모슬포 송악산의 특공기지를 지칭한다.

이상의 보고를 보아서 제주도 주둔 일본군병사들이 정예사단이라기보다는 주로 부차적이거나 예비적 병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토로 진공하는 미연합군의 압박에 대해 시간을 벌기 위하여, 화력보다는 목숨을 담보로 지구전적 유격전을 전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지동굴을 축성하여 인간병기를 이용하려는 전술이었던 것이다.

이 보고에 대해 미야자키(宮崎周一) 제1부장은 “제주도의 진지는 중앙산지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하며, “병력 외에 군수품의 급속투입의 처리”라고 일지에 기록하였다. 「본토결전기록」에는 “제58군의 기초배치(후퇴배치)는 방면군의 작전사상과 합치하지 않으며(중략)… 방면군 참모장을 파견하여 공세적 임무해결 필요(해안선으로 부터의 후퇴배치가 아닌 해안연안선에의 공세배치<sup>27)</sup>)함을 지도하고 야전중포병 연대의 전력을 증파하도록 결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8)</sup>

제주도에서 축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45년 2월 중순이다. 상순에 공사 지도 기본요원인 장교 80명이 소집되어, 진지동굴과 대포 등을 은폐하기 위한 엄체호 굴삭교육이 10일간 행해졌다. 2월 중순에 강제징용 노동자로 구성된 평양 제30사단작업대 2,000여 명이 파견되었다.

동시에 방위총사령부로부터 제11공사대가 파견되었고, 제408특설경비공병대도 모슬포의 축성에 임하였다. 또한 축성용 물자의 급속 운반을 위해, 2월에 독립자동차 제300중대, 3월에는 항만하역에 임하는 특설육상근무대 제110중대도 파견되었다.

이 시기 제주도의 세 번째 비행장인 제주 동비행장(속칭 진드르 지역)의 건설이 현재의 조천읍 신촌리에서 시작된다. 종전 될 때까지 완공되지는 못했는데, 4월 중순에는 제2활주로 공사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 제1활주로는 완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월 11일 제247비행장중대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 병력은 제주 동비행장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육군이 본격적 축성을 시작한 45년 2월에 해군도 특공주정(特功舟艇)의 비밀발전기지 건설을 개시했다. 함덕 서우봉 해안, 고산 수월봉 해안, 대정 송악산 해

---

27) 1944년 4월에 배포된 「島嶼守備隊 戰鬥敎令」에는 해안선으로부터 적당히 후퇴해서 진지를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10월에 배포된 「上陸防禦敎令」에서는 배치의 중점을 직접 해안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28)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전게서, 234~235쪽.

안, 서귀 삼매봉 해안, 성산 일출봉 해안 등 5개소에 신요-(震洋), 카이텐(回天), 코류-(蛟龍)<sup>29)</sup>용 특공기지 동굴을 파기 시작했다. 송악산 첫알오름의 거대 지하 소개호(疏開壕)도 이 시기에 굴삭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육군도 3월에 소주정(小舟艇) 비밀시설 건설을 지시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5월에 상륙용 주정(다이바츠-大發)을 은닉하기 위한 공사를 개시했다.

동굴방식으로 18개, 업체방식으로 4개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기밀작전일지(機密作戰日誌)』 5월 19일자 제17방면군 참모장에게 보고한 내용 중 제주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정을 은닉하기 위한 동굴식 작업진도는 100% 2개소(천연동굴), 20% 1개소, 10% 1개소, 5%이하 5개소였고, 업체식 작업진도는 70% 2개소, 30% 2개소였으며, 그 결과 완성된 동굴 및 업체에 의해 은닉된 주정이 4정이고, 그 외는 분산 은닉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제주의 주정 은닉기지는 현재 구름다리가 개설되어 있는 용연의 해안 동굴 굴삭 흔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용연의 지형이 은폐나 엄폐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육상근무 제166중대, 제167중대와 선박공병 제36연대 제1중대가 이 작업에 전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Ⅲ.3.2.4 기타 조치

본토결전준비로서 군이 실시하는 연안축성 및 교통 등의 시설은 법제상의 제약이 장애가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군성 군무과(陸軍省 軍務課)가 주체가 되서 군사특별조치법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법안은 3월 27일 법률 제30호로 공포되었다.<sup>30)</sup>

1차 병비(4월 30일), 2차 병비(6월 10일)로 많은 부대의 편제가 이루어지면서 장교 및 병의 구성요인이 불량해졌는데, 동원세칙(陸機密 第97号)에 의하면 “장교이하 간부는 가능한 한 신년차(대개 30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로 소질이 우량한 사람을 충용하고, 병(兵)은 기간요원으로 편제정원의 약 1/3은 재영자(在營者-대개 25세

29) 특수잠항정의 하나로 정식 명칭은 갑표적정형(甲標的丁型)이다. 전장26.3m, 전폭2m로 탑승원은 5명이며, 45Cm 어뢰발사관 2기와 3식 어뢰2기를 장착하고 있다.

30) 이법이 발효됨을 근거로 제주도내에서 진지 구축시 개인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이 군사시설로 전용되어지는 경우 아무런 장애 없이 강제로 수용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로 충용하고, 그 외는 주로 1945년 징집현역병으로 충용하는 것으로 하지만, 불가피 할 경우 징병종결처분을 거치지 않은 제2국민병(연령 18세의 사람으로 한다)으로 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1)</sup>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본토결전을 대비하여 3차에 걸쳐 수많은 부대의 편제(編制)가 이루어졌지만 부대구성원의 자질은 극히 불량했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1945년 3월 3일 軍令陸甲 제37호에 의해 야전근무대본부(9개), 육상근무중대(53개), 수상근무중대(15개)의 임시동원요령이 발령되었다. 이들 부대는 서부군관구(西部軍官區), 조선군관구(朝鮮軍管區), 선박 각 사령관 예하의 야전근무대(5개)로 편입되고, 또한 大陸令 제1267호(3월 3일)로 야전근무대(4개)를 편성해서 제16, 제17방면군에 배치되어 「대한해협방면 선박지대 설정요령」에 의해서 선박운행의 안전·촉진의 임무를 지시받았다.

이들 근무대의 정원 중 약 2할은 내지인을, 8할은 조선인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조선군관구로부터 병 1만5천명을 서부군관구로 차출하는 것으로 되었다.<sup>33)</sup>

### Ⅲ.3.3 결7호 작전의 수립과 시행

#### Ⅲ.3.3.1 결호 작전의 개시

1945년 3월말~5월경의 상황으로 결7호작전(決7号作戰)이 발령되었다. 1945년 3월 이오지마(硫黃島)가 미연합군에 점령당하고, 이오지마의 항공기지를 급속하게 정비한 미연합군의 B-29 및 P-51은 여기서 발진하여, 3월 10일의 동경대공습을 비롯, 일본 전역의 대도시 및 군사시설에 대한 무차별 대규모공습을 감행하였다.大本營(大本營)에서 본토결전에 대한 준비는 촉각을 다투는 과제가 되었다.

3월 26일에 오키나와(沖繩)의 게라마제도(慶良間諸島)로의 미연합군상륙, 4월 1일의 오키나와(沖繩) 본섬 상륙으로 시작된 오키나와(沖繩)전은 결국 일본군수뇌부

31) 1945년에만, 當時 조선인 현역병 및 제1보충병으로 징집된 인원이 陸軍 4만 6천명, 海軍 만여 명 등 총 5만 6천여 명에 이르렀다.

32)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大本營(大本營)陸軍部<10>-昭和二十年八月まで-』朝雲新聞社, 昭和五十年, 91~92쪽.

33)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大本營(大本營)陸軍部<10>-昭和二十年八月まで-』朝雲新聞社, 昭和五十年, 84쪽.

에게 본토결전 준비를 위한 시간별기용의 사석(死石)으로 위치 지워졌다.

1945년 4월 8일, 大陸指 제2438호로 「결호작전 준비요강」이 지시되었다. 「帝國陸·海軍作戰計劃大綱」에 기초해서 본토작전준비의 준거를 마련한 것이다.

**<표 1> 결호작전 주 담임 일람표**

작전구분	작전방면	예상되는 적의 진공판단	작전 주 담임군
決 1号	千島 및 北部軍管區 방면	1. 적 일부의 상륙 2. 소야(宗谷), 쓰가루(津輕)해협의 돌파	제5방면군
決 2号	東北部軍管區 방면	적 일부의 상륙	제1총군
決 3号	東部軍管區 방면	1. 적 주력의 상륙 2. 도쿄만(東京灣)내로의 침입	
決 4号	東海軍管區 방면	1. 적 일부의 상륙 2. 이세만(伊勢灣)내로의 침입	
決 5号	中部軍管區 방면	1. 적 일부의 상륙 2. 세토나िका이(瀬戶内海)의 상륙	제2총군
決 6号	西部軍管區 방면	1. 적 주력 또는 일부의 상륙 2. 대한해협의 돌파	
決 7号	朝鮮軍管區 방면	1. 적 일부의 상륙 2. 대한해협의 돌파	제17방면군

제주도는 일본본토와 함께 미연합군의 상륙 예정지 9개소의 한 지점으로 상정되었다. 8개소는 모두 일본본토였고, 제주도만 본토 이외의 유일한 본토결전의 요충으로 간주되었었던 것이다.

미연합군이 오키나와 다음으로 큐슈 북부나 한반도 남부의 일각 또는 제주도를 점령하여, 본토를 침공하는 전진기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는 대륙과 본토를 잇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져갔다.<sup>34)</sup>

### Ⅲ.3.3.2 병력의 충원과 제58군의 창설

1945년 3월 7일 軍令陸甲 제21호에 의해 96사단이, 16日 軍令陸甲 제42호로 독립혼성 제108여단(6개 독립보병대대 기간)편성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大陸命 제

34)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전게서, 162~163쪽.

1276호로 독립혼성 제108여단 및 제1특설근무대는 제17방면군 소속으로 편입되어, 제주도에 배치되었다.<sup>35)</sup>

4월 상순에 일본 내에서 신설된 제96사단 9,000여 명과 4월 중순에 중부군에서 전용된 독립혼성 제108여단 6000여 명이 제주도에 상륙했다.

96사단은 전 장병의 2/3가 40세, 장교의 평균연령은 48세로 “편성장비조차 충분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며<sup>36)</sup>, 독립혼성 제108여단은 “장교이하 고령자가 많고, 장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단순히 병원만 도착해서 전력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작전부대로써 가치가 없을 정도의 장비이므로 방면군에서 속히 장비충족에 관하여 조치바람”이라고, 제17방면군 참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봐서<sup>37)</sup>, 유력한 병력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대였다. 정예 장정요원은 징집이 다 이루어져,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한 예비 병력으로 구성된 정상적인 전투력을 기대할 수 없는 병력이었다.

4월 15일에는 제주도의 전 병력을 통솔 지휘하는 제58군사령부가 신설되고,<sup>38)</sup> 제96사단, 제111사단<sup>39)</sup>, 독립혼성 제108여단, 독립속사포 제32대대, 제1 특설근무대 등이 속속 배치되었다. 제58군사령부는 독립해서 제주도를 작전지휘를 할 수 있는 사령부로, 제주도의 전 육군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가졌다. 4월 21일에 제주도에 도착했고, 4월 23일에 제주 농학교(제주 관광산업고등학교의 전신)에 본부를 두었다.

4월 30일자 제17방면군 作戰命令甲 제49호의 발령요지에 “제주도에서 방면군의 작전계획은 미연합군이 공해기지(空海基地) 설정을 봉쇄하는데 있다. 제58군사령관은 제주도에 요역을 확보해서 미연합군이 공해기지, 그 중에서도 항공기지의 설정 기도를 봉쇄해야 한다.”고 임무를 부여했다.<sup>40)</sup>

오키나와(沖繩)전이 막 시작된 4월 2일에 “나하(那覇) 방면의 정세로 보아 제주도행 물자수송은 최대한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고, SS·SB의 주력을 피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소형선이나 그 외 제주도행 수송 적선을 집결하고, 또한 한반도남부 각 항만을 이용한다.”는 방침이 지시되어 급속한 병원(兵員), 마필(馬匹), 자동차, 군수물자 등의 수송이 시작되었다.<sup>41)</sup>

35)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滿洲・朝鮮・65 機密作戰日誌(乙綴)』 - 1945年 4月, 21번째 電文.

36)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전계서, 234~235쪽 스키타 大佐의 제주출장 보고문중에서.

37)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四月, 81번째 전문.

38)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33번째 電文.

39)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7번째 電文.

40)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149번째 電文.

그러나 도착되는 물자의 하역과 수송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체화가 계속되자, 제58군 참모장은 5월 2일에 제17방면군 참모장에게 “도민 총출동에 의한 체화처리 금일부터 개시”라고 도민총동원을 통한 체화물자처리를 보고하고 있다.<sup>42)</sup> 결7호 작전에 대비한 물자수송과 진지구축에 제주도민의 총동원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4월 하순에는 제주항 부두 정리 작업을 위하여 육상근무 제166중대, 제167중대의 증파가 요청되었다. 이 부대는 부두 정리 작업이 끝나자 원대 복귀되었다.<sup>43)</sup>

5월 상순에는 만주의 관동군으로부터 제111사단 1만 2천여 명이 배치되었다. 제111사단은 제주도의 최정예사단이었지만, 배치 당시 제111사단도 야포 8문뿐으로 화포와 분진포의 탄환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sup>44)</sup>

제96사단은 이미 축성에 임하고 있던 루스 제30사단 작업대를 휘하에 흡수하여 축성작업을 계속해 갔다. 주력은 제주시에, 3개 연대 중 제292연대를 모슬포에 배치하여 축성작업을 계승했다.<sup>45)</sup>

제96사단사령부는 4월 19일 산천단 삼의양오름 부근의 민전동(속칭 민밭)학교 두었다.<sup>46)</sup> 4월 21일에는 토목·건축 등의 기술을 가진 견습사관 이하 81명중 78명이 제주에 도착했다.<sup>47)</sup>

5월에는 제1특설근무대 소속으로, 지하호를 포함한 진지축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설근무 제4~13 중대의 10개 중대 약 6,600여 명이 배치되었다.

그 외 제58군사령부의 직할부대로서 야전중포병 제15연대, 독립속사포 제32대대, 독립구포 제23대대, 분진포 제1대대, 제1~3독립작정소대, 독립전차 제14중대, 독립고사포 제59~60중대, 전신 제11연대 등이 속속 편입되었다.

45년 3월말 약 3,000여명 정도였던 병력이 불과 2개월 후인 5월말에 10배 이상인 36,000여 명의 병력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기밀작전일지(機密作戰日誌)』의 5월 1일자 제17방면군 참모장이大本營(大本營) 참모본부 제1부장 앞으로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58군의 실전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했었다.<sup>48)</sup>

41)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4번째 전문.

42)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五月, 10번째 전문.

43)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四月, 108번째 전문.

44)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상계서, 234~235쪽 스기타 大佐의 제주출장 보고문중에서.

45) 宮田 節子, 전계서, 228쪽.

46)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四月, 84번째 전문.

47)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四月, 114번째 전문.

“제 58군의 실전력 중에서 포 병력의 미약은 미연합군의 항공기지 설정에 대해 유효한 제압이나 설정방해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현상황으로는 본토결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방면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병력증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수송 관계 등을 지급 검토 바람.

제1안- 제121사단 및 야전중포병 제15연대의 증원

제2안- 제121사단의 1개연대기간의 병력 및 야전중포병 제15연대의 증원

제 2안은 개설비행장 및 급속 설정가능박지(고산리 남북지구-서해안)에 대한 유효한 제압이나 방해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이라고 판단함. 제120사단은 이미 대구, 부산방면에 대한 요새 및 사단지 신설 승계 작전 준비를 진전시키고 있어서 제주도 증파는 제121사단이 가능한 상태임”

조선군 전체의 상황을 5월 5일자 「국무메모」(육군성 군사과 국무대좌의 업무람)에, 조선군관구 참모부장 겸 제17방면군 참모부장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식량은 3개월분, 탄약은 0.5회전분, 축성공사는 어렵지만, 스스로 하고 있다. 선내(鮮內)에 21만의 재향군인이 있다. 제3차 병비에 8만, 아직 13만의 여유가 있다. 하사관 이상은 9천명이 부족하고, 조선인은 현재 배급량이 백미 1합 8작이다. 피복이 없고, 솔잎이나 소나무 껍질을 먹고 있다. 항만에는 막대한 체화가 있다. 민심의 동향은 특별한 조치를 요한다. 대폭격처치는 저조하고, 공장의 대책, 도시소개 일절 없고, 경성·인천·부산·평양은 지급대책이 필요하다. 총독부의 정치성은 전적으로 작전협력 상태이지만, 실행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법률대신의 발령은 내무성과 법제국을 경유하여 여기까지 2개월이 걸린다.”

이것은 조선의 방위는 불충분하고, 정무총감이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군사령관의 총독검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sup>48)</sup>

48)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게서, 五月, 6번째 전문.

49)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전게서, 235쪽.

6월 9일에 참모총장이 대련 출장 중 경성에 들어서 제17방면군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중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에는 “탄약 2회전분, 식량 6개월분, 군인 42,000명, 마 2,000필, 주민 23만(노약자 5만 철수)”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4월말의 시찰이나 보고에 비해서 제주도의 군수품 상황이 많이 충실해져 있다.<sup>50)</sup>

5월 22일 제121사단의 제주도 파견이 결정되었다.

방면군 참모장 전문 제5048호로 다음과 같이 지시되었고, 7월 중순까지 사단전원이 제주도로 전진하였다.<sup>51)</sup>

“제121사단은 제주도행 수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에 준비할 것.

1.사단 전력(全力)으로 마필과 자동차는 편제 정수의 1/3, 탄약 1회전분, 양곡 3개월분을 휴행한다.

2.수송량은 인원 14,700명, 마 1,000두, 자동차 50대, 탄약 2,700Ton

3.수송은 5월 하순부터 가능한 한 속히, 승선지는 여수를 희망한다.

4.사단은 현재 일부(보병 3개 대대, 포병 1개 대대)가 여수부근에서, 주력은 대전부근에서 수송 중으로 5월 말까지는 전부 집결 완료한다.”

---

50)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상계서, 291쪽.

51)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五月, 75번째 전문.

## IV. 패전 직전의 제주도의 상황

### IV.1. 방어 전략의 추진과 병력배치 상황

#### IV.1.1 1945년 6월까지의 상황

6월 6일에는大本營(大本營)의 지시(5월 25일자 지시)로 본토결전시 작전준비 및 제주도 축성의 비밀정도 판단자료로 쓰기위해 비행 82전대에서 제주도 상공에서 항공사진촬영을 행했다(축적 1/10000).

촬영지역은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도두봉-와산리-견월악-대륙산 지역으로 제주 동서비행장과 교래리 비밀비행장 및 제주항등 제96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북동부지역이다.

또 한 지역은 모슬포-상예리(중문 경)-밭이악(바리메)-용수리 지역으로, 모슬포 해군항공기지를 끼고 있어서, 미연합군이 제주도를 공략할 경우, 어느 곳보다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일본군이 예상하고 있던 지역이다.<sup>52)</sup>

6월 14일에 육군참모차장이 미연합군의 항공정찰에 따른 진지구축시의 주의사항으로 “최근 적기정찰경로를 통계적으로 관찰하면 연안지역의 진지축성을 충분히 정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축성완성전의 위장과 착수전의 자재집적, 축성 도중의 위장과 비밀에 관해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하도록 지도하기 바람.”이라고 지시하였다.<sup>53)</sup>

실지로 당시 미연합군의 항공정찰로 일본본토는 물론 우리나라의 중요 군사시설들은 미연합군 정찰기에 의해서 사진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6월 16일 제주도의 전비강화에 관한大本營(大本營)의 지시가 제17방면군에 내려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전비강화에 관해서 지난번(4월 25~26일)막료(杉田)로 하여금 현지 실정을 실시한 바 미약하여, 다음과 같이 처치한다. 또 본건과 그 외 관련 가까운 시일 내에 제1부장을 귀지 및 제주도에 파견하기로 하였음

#### 1. 병비.

- ① 독립야포병 6연대 와 3차 병비에 의해 제12포병사령부, 독립산포병 제20

52)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六月, 31번째 電文.

53) 상계서, 六月, 59번째 電文.

연대, 박격포 제 29대대, 독립공병 2개 대대를 증강한다.

② 조만(朝滿)으로부터 일부 화기 등을 전용해서 각 병단에 증가 배치하도록 연구한다.

### 2. 전투서열의 전비

① 제1항 부대 및 현지에 도착해 있는 제121사단을 제58군 전투서열로 편입시킨다.

② 현지에 배속할 수 있게 전차중대 등을 군령적으로 정리해서 예속관계를 정하도록 한다.

### 3. 병참

① 자동차차는 제121사단의 나머지 약 100량을 수송한다.

② 탄약은 선만(鮮滿)으로부터 추가 수송하여 평균 1.5회전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파행수정을 급속히 실시할 것. 十高復働信管 800, 點火口雷管 500을 중앙으로부터 증가 보급한다. 분진포 탄약 및 「夕」彈은 유감스럽게 채고 전혀 없음.

③ 폭약은 조선군이 보유한 것으로 보급한다.

④ 방역급수부는 편성 및 전용의 여력, 증가배속으로 사단방역급수부의 통합운용을 기대한다. 위생기관의 부족은 제64병참병원의 나머지를 투입한다. 제121사단 방역급수부, 야전병원은 동원명령 완료.

⑤ 축성기구는 조선군으로부터 지급 보급한다.(부족분은 만주로부터 보급한다.)

⑥ 연료중 자동차용은 제주도 생산<sup>54)</sup> 전량을 사용한다. 그 외의 연료는 중앙에서 교부한다.

⑦ 항공소형 폭탄은 지상전투용으로 만주방면으로부터 추송하도록 처치한다.

### 4. 선박관계

① 제1항 부대 및 제121사단용 잔량 자동차등의 수송을 위해 약 2만 총Ton의 선박을 충당할 예정임.

---

54) 현재 제주항 부근에 있었던 동양척식(주) 공장에서 고구마를 원료로 생산했던 알콜 연료를 말한다.

② 국지수송에 관하여 제1선박수송대를 귀군의 지시 하에 두도록 급속히 처리한다.

#### 5. 통신

① 대본영(大本營)통신대의 능력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대본영(大本營) 육군 통신대에서 제주도통신대(제3통신대)를 지휘한다. 지휘및 정보통신용으로 250kW 무전기 1대를 현재 수송중임.

② 2호 5기, 3호갑 20기, 특갑수신기 2대와 진공관 약간을 6월 25일 후쿠오카에서 제58군에 교부한다(수령자를 후쿠오카병기출장소에 먼저 보낼 것.)

③ 소모품은 일괄 제17방면군에 보급해 있는 바, 제주도에 적어도 0.5개월분을 보급한다.

#### 6. 비행장

① 육군 동비행장공사의 중지및 비밀비행장의 隼(독립혼성 제108여단)진지내 설정에 관해서는 현재 연구 중임.

② 해군비행장의 공사는 쓸모없으므로 중지하도록 해군에 교섭중임.

#### 7. 전훈속달

① 전훈서류 수령을 위해 수령자를 직접 동경으로 파견함.

② 금후 전역자 등을 제58군에 파견한다.

8. 인적조치에 관해서는 별도 연락한다.”

대본영(大本營)에서 제17방면군에 지시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시 제주에 주둔했던 부대마다 인원만 채웠을 뿐, 병기나 탄약, 장비, 소모품등은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다.

제주도가 본토결전의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군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최정예부대가 아닌 재향군인 소집자 중심으로 구성된 부대를 급조해 파견한 결과이다.

또한 모슬포 해군항공기지 공사에 대한 육군의 시각과 제주 동비행장의 공사 중지 지시 등을 볼 때, 육군과 해군간의 시각차이(물론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내 일본군 육·해군 간에는 작전상 서로 견제가 심했다.)를 확인할 수 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제주도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제17방면군의 전투

서열에 속하면서도 제58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부분에서 제17방면군을 무시하는 듯한 사례를 여러 자료에서 엿볼 수 있다.<sup>55)</sup>

6월에 들어서도 제주도에 제121사단을 비롯하여, 독립치중병 제190연대, 앞서 언급되었던 독립야포병 제6연대, 제12포병사령부, 독립산포병 제20연대, 박격포제 29대대, 독립산포병 제126대대, 독립공병 제127대대, 분진포 제1대대, 독립구포 제23대대, 야전중포병 제15연대(갑), 독립치중병 제65중대, 제64병참병원 등의 부대가 제주로 전입되었다.<sup>56)</sup>

미야자키 제1부장은 6월 25일부터 7월 2일에 걸쳐서 군사령부와의 연락, 제주도의 현지시찰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수기하였다.<sup>57)</sup>

“제주도시찰

1. 6월말 60~70%정도, 동굴3만2천m.
2. 7월말을 목표로 한 작전준비로서 축성과 훈련을 반반, 개인전법을 주로, 축성은 전지, 해안선을 개성, 작전자재 그중 근접전투자재의 정비로 대체로 7월 말에는 거의 전투할 수 있음.
3. 지형개관 - 울퉁불퉁한 지형이 적고, 중복은 초원, 은폐엄폐는 곤란함.
4.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에 걸쳐 간부교육, 대대장 이하의 소질은 극히 불량, 교육기능 극히 불충분
5. 급양병역 - 6만8천명, 현재 주식 5개월분, 부식 불충분, 더욱이 7~8월에는 8개월분을 준비
6. 도민소개 4만인 중 현재 5천인(총인구 22万)
7. 급수는 극히 곤란, 1개월분 (수병공출)의 저수
8. 군사령관 에이사와(永澤佐比重) 중장, 심신 공히 양호
9. 제주도의 작전준비 진척 - 대체로 궤도에 올라서 약 50% 개성. 7월말에는 대체로 개성, 앞으로 급수의 해결과 함께 중점을 서남부에 집약함을 요한다.”

#### IV.1.2 1945년 7월 이후의 상황

55)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게서, 六月, 72번째 電文.

56) 상계서, 六月, 87번째 電文.

57)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전게서, 299쪽.

7월 14일에는 결호작전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제주도의 작전지도에 관한大本營(大本營) 육군부의 지시가 내려졌다.

大陸命 제1339호로 미연합군의 제주도상륙이 감행되었을 때를 대비하였고, 답신은 병력부족에 따른 대처방안을 촉구하고 있다.<sup>58)</sup>

“1. 제주도에서 작전목적은 미연합군의 공해기지 설정기도를 분쇄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초기에 공세를 취하여 격멸하도록 작전한다.

2. 제17방면군 사령관은 1개 사단(제120사단) 기간의 병력을 한반도남부에 준비해서, 제주도에 대한 미연합군 내공(來攻) 예상이 커지게 되면 적시에 이 병력을 제주도에 투입하여 제58군 전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한다.”

이 지시에 따라 제17방면군은 7월 16일자 樂參電 제8412호 회신은 다음과 같다.

“1. 大陸指 제2521호 전문 잘 받았음. 동 제2항에 관하여 1개 사단을 투입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음.

2. 전항의 병력 투입에 따라 조선 본토에서의 임무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므로 이후 당 방면군에 대한 증세병력의 유무 및 그 예상을 내시 바람.”

제주도에 대해서는 미야자키 제1부장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현지를 시찰해서 45년 가을쯤 미연합군이 상륙할 예상이 매우 크다는 정세판단을 하고 있는 점에서 상기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본토작전기록」에는 7월의 제주도 상황을, 제58군(3개 사단 반으로 구성)은 주진지를 해안 가까이 배치함과 동시에 제121사단을 제주도 동부지구에 주력을 집결해서 공세병력으로 배치했다.

121사단으로 하여금 진지구축에 매진하게 해서, 7월말까지 골간진지를 개성하고 그 이후는 훈련과 축성을 병행해서 조속히 작전준비를 완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사이 선박부대는 미연합군기가 공습을 해옴에도 수송을 감행하여 물자수송은 대체

---

58)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七月~八月, 50번째 전문.

로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그렇지만 수송선은 점차 공습 피해를 입게 되어 종전시에 대형선은 전멸하고 기범선은 약40%의 손해를 입고 있었다.

제5항공군은 5월 중국대륙으로부터 파견되어 한반도 전체에 항공부대를 전개하여, 방면군의 작전, 특히 제58군의 작전에 긴밀히 협력하도록 작전준비에 매진하였다.

7월 중순이 되자 다시 대본영(大本營) 육군부에서 제주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는데, 7월 16일부 전문에서 미연합군 상륙이 감행될 경우 한반도 본토로부터 병력지원을 강하게 지시하였다.<sup>59)</sup>

“1. 제주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결호작전 전반의 왜륜(そんく-출입하는데 중요한 지점)을 이루는 지역으로, 이의 확보는 절체필요(絶体必要)하다. 대본영(大本營)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귀 방면군의 예하에 있지만, 필승을 기할 수 있는 전력은 단호히 투입하여 과감히 작전지도를 행하도록 배려바람

2. 이와 관련하여 앞의 전력을 투입할 경우에는 그 보진병력을 만주방면으로부터 실기하지 않고 전용하도록 바로 시달할 것임. 또 「결7호」 전반에 있어서 필승전력은 다방면 특히 대륙으로부터 상황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집중하도록 연구 중임.”

또 7월 17일에는 대본영(大本營)에서 일본본토는 물론 상륙이 예상되는 전 지역 최고 지휘관에게 결호작전에 따른 대전차 전투에 관한 행동, 특히 특공에 의한 육박공격을 大陸指 제2525호로 발령하고 있다. 그 내용은 미연합군의 상륙시기를 촉각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대일본제국 황실의 온존만을 위한, 대전차 자살특공을 강요하였다.<sup>60)</sup>

“1. 결호작전에 있어서 전투의 목적이 적의 주전력인 전차격멸에 있음을 중시하여 부대 전체가 만반의 작전준비, 그 중에서도 축성진지의 편성, 포병 및 전

59)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七月~八月, 54번째 전문.

60) 상계서, 七月~八月, 65번째 전문.

차의 운용 등, 대전차 전투를 기조로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차에 대한 작전준비는 해안가 부근에서 내륙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전략전비로 적 전차를 격멸하는데 유감없이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연안도로의 파괴 또는 이에 대한 준비를 특히 중시하도록 한다.

3. 대전차전투는 일사필쇄의 특공에 의하여 육박공격을 주체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군 특공에 대해 병종 및 병과 부를 불문하고, 육박공격 전법을 대전차 결전수단으로 단호히 행동한다.”

8월 초에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大本營(大本營) 육군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중산간의 오름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한 후퇴적 지구작전을 버리고, 일사필쇄의 공세적 작전에 부응하기 위해 해안선 부근으로 제주도 주둔 부대의 재배치가 제58군 사령관에 의해 채택되어 8월 1일 명령이 하달되었다.

“1. 翠병단(독립혼성 제108여단) 주력 5개 대대를 서부지구 청수부락부근에 배치하여 공세를 나누어 맡음(현재 청수리에 평화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진지동굴이 이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었음).

2. 市병단주력은 산방산-광해악(넙게오름)선에 적어도 약1개 연대를 기동에 비로 하고, 군산(굴피오름) 북측 지구에 유리하게 전개하고, 상황에 따라 대(待)기동을 준비한다.

3. 榮光병단(제121사단)주력은 금악(금오름)-발이악(바리메)-금덕리 부근에 기동준비시키고, 일부로 북서부 연안에 배치하여 경계에 임한다.(이 부대가 전쟁말기 애월초등학교에 전진하여 배치되었던 부대임).

4. 玄병단(제96사단) 주력은 제주 동서비행장 가까이 배치하여 해당 비행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 방면에 대한 공세를 나누어 맡고, 상황에 따라 주력 또는 유력한 일부로써 기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이 부대가 사라봉과 별도봉의 중턱에 진지동굴을 파서 주둔했던 부대임.)

5. 제주도 동부 및 남부지구에는 각1개 대대를 배치하여 교래리 비행장의 직접 엄호 및 상륙하는 적군의 행동방해에 임한다.

6. 제주도에 대한 적의 진공 판단은 현재 특이한 징후는 없고, 적의 본도에

대한 상륙은 초가을 경(8월 하순경) 이후라고 판단됨. 도내에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의 전력자원에 매진하는 외에 특이한 사정없음.”

이라고 제17방면군 참모장에게 보고하고 있다.<sup>61)</sup>

이 보고에 방면군으로부터 회신이 내려와 대체적으로 제58군사령관의 의사대로 배치가 승인되었다.<sup>62)</sup>

“제주도에 대한 방면군의 정예 제120사단을 증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시기는 가능한 한 속히 이루어지도록(8월중~하순까지) 중앙에 의견을 개진 중이니,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기 바람. 금후 귀군의 작전지도는 다음과 같이 준거하여 실시할 것을 명령한다.

1. 제120사단은 주력을 서부지구, 일부를 북부지구에 배치하여 공세병단으로 교육훈련에 임하고,
2. 동(동쪽)병단은 앞서의 배치에 준한다.
3. 玄병단의 전방진출은 귀관의 의사대로 한다.
4. 기설비행장 확보를 위해 각 보병 약 1개 대대 기간을 각각 제주 동비행장과 서비행장 및 모슬포 비행장에 직접 배치한다.”

대본영(大本營) 지시인 1개 사단 투입은 8월 중순을 파견 적기라고 판단하여 8월 5일 제120사단에게 파견 준비를 명령하였다.<sup>63)</sup>

그러나 제120사단은 제주도 파견을 명령받아 한반도 남부에서 승선을 기다리던 중 8월 9일 돌연 소련의 대일전 참전선언과 만선(滿鮮)국경의 돌발공격으로 인하여, 제120사단 병력은 만선국경으로 급히 파견됨으로 인하여 제주도에 파견되지 않았다.

## IV.2 내륙결전 선택

6월에 들어서도 第121사단의 14,700여 명, 제12포병사령부, 독립야포병 제6연대,

61)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게서, 七月~八月, 124번째 電文.

62) 상계서, 七月~八月, 7月31日字 電文.

63) 宮田 節子, 전게서, 239~240쪽.

독립산포병 제20연대, 독립공병 제126대대, 독립중포병 제9중대 등이 제주도로 전입해왔다. 제주도의 총병력은 3개 사단반이 되어, 5만 명을 넘게 되었다.

6월20일에 가와베 참모차장이 『본토결전 근본의의의 철저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발령했다. “결전 방면에 있어서 연안 배치 병단이 만에 하나 전황 곤란을 이유로 해당방면의 결전을 피하여 후퇴에 의한 지구전을 강구하는 관념은 본토결전의 진의에 반하는 것임”이라고 지적했다.<sup>64)</sup>

본토결전이 어떻게 전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었다. 하나는 연안 해변에서의 전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후퇴배치를 통한 내륙결전이다.

전자는 해안선에 진지를 구축하여 상륙하는 미연합군을 해안선에서 격퇴시켜서, 내지에 교두보를 만들 수 없게 적을 격퇴하는 전법이다. 이 작전은 미연합군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일본군도 커다란 희생을 요한다. 미연합군이 뛰어난 제공권에 제해권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함포 집중사격의 엄호가 있을 때는 더욱 상황이 어렵다.

한편, 후자는 해안으로부터 조금 후퇴한 지점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서, 미연합군에게 상륙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견고한 진지를 바탕으로 장기 지구(持久)의 태세로 미연합군을 소모시키는 작전이다. 일본군 전력의 조기소모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연합군에게도 일격에 큰 타격을 줄 수는 없다.

참모본부에서는 1944년 초두부터 본토 결전시에는 해안선결전을 지시하고 있었지만, 제58군 지휘부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해안선결전보다, 병력 소모가 비교적 적고 보다 안전한 내륙결전을 지향하여, 후퇴배치의 진지구축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오키나와(沖繩)전에서도 현지군은 참모본부의 지시에 반해서 내륙결전을 선택했다.

5월경 제17방면군의 이하라 참모장이 제주도에 파견되어 공세적 임무해결의 필요를 역설했다.<sup>65)</sup> 그러나 그 후에도 제주도에서 후퇴배치중심의 진지구축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다.

6월말이 되자 육군은 일단 미연합군에게 일대타격을 가한 후에 유리한 조건에서 강화를 기대하려고 했다. 그 때문에 참모본부에서는 얼마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64)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大本營(大本營)陸軍部<10>-昭和二十年八月まで-』, 朝雲新聞社, 1975, 308~310쪽.

65)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五月, 31번째 電文.

도 조금이라도 적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해안선 결전으로의 지도를 강요했다.

7월 1일~2일 미야자키 제1부장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작전준비를 지시했다.<sup>66)</sup> 미야자키부장은 “앞으로 중점을 제주도의 서남부에 집약함을 요한다.”라는 메모를 남겼다.<sup>67)</sup> 해안선으로의 전진을 강하게 설득하고 부족한 병력을 증강하기로 한 것이다.

7월 4일 제58군사령부 주력은 제주농학교에서 한라산의 북서 어승생악(표고 1,169m)으로 이전했다<sup>68)</sup>

7월 13일 참모총장은 제17방면군 코즈키(上月良夫) 사령관에게 “제주도에서 작전목적은 적의 공해기지 설정의 지도를 분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작전초동에서 공세를 취하여 적을 격멸하도록 작전한다.”라고 직접 명령하였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해안선결전으로 작전을 변경시키도록 했다.<sup>69)</sup> 그 후에, 제58군은 참모본부의 의향대로 해안부로 배치의 중점을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70)</sup>

7월 13일, 육·해군 공통으로 「결호 항공작전에 관한 육·해군 중앙협정」 별책이 나왔다. “적의 남선, 제주도에 대한 공략작전에 대해서는 소요의 병력으로서 이를 분쇄하는 데 힘쓴다.”로 하고 있다.<sup>71)</sup>

미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하면, 우선 상륙선단에 항공기를 이용한 특공이 전개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7월 17일에는, 가와베 참모차장으로부터 제17방면군 참모장 앞으로 “제주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결호작전전반의 중요한 지점이므로 이의 확보는 절대 필요하므로大本營(大本營)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곳”이라고, 긴급·기밀·친전의 전보가 보내왔다.<sup>72)</sup>

별지로 7월 14일에 발간된 「결호작전에서 대전차 전투요강」을 일부러 첨부했다. 동 대전차요강에는 “육상전투의 요체가 적의 골간 전력인 전차격멸<sup>73)</sup>에 있음을

66) 상계서, 五月, 84번째 電文.

67)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상계서, 299쪽.

68)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七月~八月, 13번째 電文.

69)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七月~八月, 46번째 전문.

70) 이 지시에 의해서 45년 7월부터 도내 해안부근의 각 오름에 동굴진지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별도봉, 당산봉, 송악산, 군산, 녹남봉, 제기리오름, 지미봉 등)

71)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大本營(大本營)陸軍部<10>-昭和二十年八月まで』朝雲新聞社, 昭和五十年, 380쪽.

72)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七月~八月, 54번째 전문.

73) 육박공격이란, 미연합군 전차에 폭탄만을 안은 채 뛰어들어 파괴시키는 자살공격을 말

중시”하고, 전법은 일사필쇄의 특공에 의한 육박공격을 주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74)</sup> 미 연합군 상륙시에 공중·해상공격을 뚫고 상륙해오는 미 연합군부대에 대해서, 인명을 무기로 특공을 감행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7월 20일에는 미 연합군의 진공이 예측되는 제주도 서남부 모슬포 앞, 마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5Km의 해역에 수심3m의 지점에 기뢰 1,200기가 부설되었다.<sup>75)</sup>

이 기뢰 부설은 미 연합군의 항공기지 설영을 목적으로 모슬포 해군 항공기지를 탈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미 연합함대의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설된 것이다.

7월 중순, 제17방면군은 각지의 참모장과 참모주임을 경성으로 소집하여, 병기연습을 행했다. 해안선 결전에 대한 작전사상의 통일행동을 계획하고, 연안구속병단과, 기동결전병단<sup>76)</sup>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병기연습이었다. 그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8월 1일에 제주도내 각 군의 참모들을 소집하여 작전계획의 변경이 지시되었다.

7월 30일의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7월말경의 정세판단』에서 “최근에 적기의 공습상황을 감안하면 적은 제주도(남선의 도서를 포함)부근으로 내습할 공산이 매우 크고, 그 시기는 머지않다”고 판단하여 제주도 수비군의 긴장감은 증대되고, 더욱더 준비를 서둘렀다.

7월에는 박격포 제29대대, 독립공병 제127대대 등이 보강되었다. 7월말에는 탄약 4.5회전분<sup>77)</sup>, 양곡 6만 명 6개월분, 마량 4천두 6개월분의 집약이 끝나고, 축성은 약 60%정도까지 진척되었다. 물자의 집적은 상당히 준비가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한다. 병종을 불문하고 감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4)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七月~八月, 54번째 별지 전문.

75)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①引渡目錄·4 鎮海警備府引渡目錄3/3 濟州島航空基地』, 295쪽.

76) 연안구속병단이란, 상륙예상지역에 배치되는 병단을 말하고, 기동결전병단이란 복수이상으로 예상되는 상륙예상지역의 어느 곳이든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병단을 말한다.

77) 회전분이란, 군수품의 사용, 보급 등의 기준을 나타내는 단위수량으로 1회전은 통상 3~4개월의 작전기간을 상정한 것을 말한다.

쇼와 18년의 參謀本部 「막료수부」에 의하면 사단의 1개월 군수품은 약1만Ton으로, 탄약은 1문(銃)당, 중기3,000발, 야(山)포 2,000발, 십류 1,500발이었다. 단 그 수량은 당시의 생산력, 예상전장, 전황 등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17방면군의 불안은 계속되었다. 오키나와 작전부대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오키나와 전투에서 본 것처럼 전력의 발휘에는 더욱 노력을 필요로 하고, 대전차 전법이나 기동결전병단의 교육에 더욱 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여겼다.<sup>78)</sup>

8월 5일, 기동결전병단으로, 제120사단 8천여 명이 투입되는 명령이 발령되었다. 제주도에의 전입을 위해 여수, 부산항으로 집결하던 제120사단은, 8월 9일 돌연 소련의 대일 참전선언과 동시에 만주와 선만 국경으로 공격해와 제주도가 아닌 선만 국경으로 전용되었다.

### IV.3 패전시 제주도 부대배치와 진지 현황

패전시 제주도의 일본육군부대 배치상황은 『본토결전기록·제5권·제17방면군』의 부도 제4「제주도 병력기초 배치요도 1945년 8월」과 『제58군 배비개견도 제주도』라는 진지를 기록한 지도에서 상세히 알 수 있다. 본토결전준비에 4종류의 진지가 포진되어 있음은 일본본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였다. 가짜(偽)진지<sup>79)</sup>, 전진거점진지<sup>80)</sup>, 주저항진지<sup>81)</sup>, 복곽진지<sup>82)</sup>이다.

미연합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던 지역이 제주도의 서남부지역이다. 이 지역은 미연합군이 상륙할 경우 공해기지설정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상륙예상지로 예측하고 있던 지역으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중에서 가장 정예사단으로 여겨지고 있던 제111사단 1만2천여 명을 중심으로 독립혼성 제108여단의 2개 대대 2천명과 포병부대의 상당한 병력 등 함께 2만여 명 이상이 배치되었다.

78)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게서, 七月~八月, 148번째 전문.

79) 가짜진지란, 적의 포격·폭격의 흡수, 분산 등 적의 진행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진지를 말한다.

80) 전진거점진지란,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위치하며, 일부의 병력을 파견해서, 중요한 지점이 적에 빼앗기는 것을 방해하고, 적에게 전개방향을 탄 방향으로 유도하여, 주저항진지로의 접근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일시적으로 적에게 점령당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진지이다.

81) 주저항진지는 전진지의 골격으로 주력부대를 총동원하여 방어하는 진지대이다. 보병의 항전지대와 그 후방의 주력포병으로 설비가 이루어진다.

82) 복곽진지는 주저항진지가 적에게 점령당한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진지로 제주도의 경우는 한라산 어승생악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111사단의 사령부는 해안부로부터 약10km정도 떨어진 안덕면 동광리 소재의 당오름 주변으로<sup>83)</sup>, 정물오름과 도너리오름이 주변에 있고 평시에는 부대가 정상적으로 훈련 및 주둔할 수 있는 넓은 평지와 식음수 채수가 가능한 지역이다. 지금도 당오름에는 오름의 7부 고지에 분화구안과 외부에 당시 축조해 놓은 진지동굴이 남아있다. 또한 도너리오름에도 문헌상에는 독립산포병 제20연대 및 박격 제29대대가 주둔한 기록이 있는데<sup>84)</sup>, 도너리오름 앞 곳자왈 지역에 당시 진지흔적이 남아있다. 제12포병사령부는 7월 10일 당시 화전동부근의 다래오름에 주둔하고 있었다.<sup>85)</sup>

제주도의 서남부 다음으로 중시되고 있었던 곳이 섬의 중앙 북부이다. 즉 일본 육군의 동·서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던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제96사단을 중심으로 1만여 명이 배치된 지역이다.<sup>86)</sup> 제96사단의 사령부는 제주항에서 남쪽으로 8km정도 떨어진 지금의 삼의양오름 부근의 민전동(옛 학교자리)에 있었다.

섬의 서북부에는 제121사단 1만3천여 명이 배치되었다. 여기에 배치된 부대는 전투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기동결전병단으로 이었다. 즉 서남부나 제주시 부근에서 상륙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병단이다. 제121사단의 사령부는 바리메오름 부근에 두어졌고, 휘하인 제264연대의 본부가 그 동쪽 2km에 있는 노꼬메오름 부근에 있었다. 제121사단의 주력은 패전이 가까워 저서는 기동결전병단이라는 임무가 주어져 애월읍 소길리와 금덕리 주변으로 결집하였다.<sup>87)</sup>

패전시의 파견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제120사단도 제주에 배치 될 경우 고산 부근에 배치되어, 기동결전병단으로 할 예정이었다.

섬 동부에 배치되었던 부대는 독립혼성 제108여단의 주력 약4천여명이었다.<sup>88)</sup> 상륙예정지점이기는 했지만, 면적이 넓은 것에 비해서 병력이 적었는데, 4월 15일자 제96사단 참모 정찰결과 보고문에 의하면, “제주도의 동부는 무수, 무목지대로 유격 부대 1개 대대면 충분”<sup>89)</sup>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독립혼성 제108여단 유력의 2개 대대가 구좌읍 덕천·송당·조천읍 와

83)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七月~八月, 28번째 전문.

84) 상계서, 七月~八月, 28번째 전문.

85) 상계서, 七月~八月, 28번째 전문.

86) 상계서, 七月~八月, 124번째 전문.

87)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七月~八月, 124번째 전문.

88) 상계서, 七月~八月, 28번째 전문.

89) 상계서, 四月, 75번째 전문.

홀리 경계지역인 서검은오름, 거친오름, 안돌오름, 거슨새미오름으로 둘러싸인 평지에 주둔했고, 주변의 오름에 게릴라전을 대비한 진지구축을 행했다.

현지 오름에는 아직도 진지동굴들이 상당수 남아있다. 또한 주변(거슨새미오름, 밧돌오름)에는 식수로 이용 가능한 샘이 있었다.

동부내륙에는 전진거점과 주저항진지가 몇 군데 구축되고, 거의 위장진지였다. 이 지역으로 상륙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기에 최후에 유격전만을 구상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병력도 패전이 가까운 시기에는 교래리 비밀비행장을 방비하기 위해 1개 대대 약1천여 명을 남기고 주력을 섬의 서부인 청수리 부근으로 옮겨서 기동결전병단으로 하였다.<sup>90)</sup>

북쪽진지는 한라산 어승생악에 만들어졌다. 1945년 7월 4일 제58군 사령부가 제주농학교로부터 어승생악으로 옮겨서,<sup>91)</sup> 본격적으로 미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최후의 방어진지로 하기 위해서였다. 어승생악의 7부 정도에 진지동굴(현재 파악되고 있는 동굴입구가 4개소 정도임)을 구축해서 정상의 토치카와 수직통로로 연결시켜서, 항시 미연합군 상륙에 대비한 감시를 하고 있었다.

증언에 의하면 해방 후 토치카로부터 지하동굴로 연결되는 수직통로는 안전상의 문제로 미연합군에 의해 메워졌다.

---

90) 상계서, 七月~八月, 28번째 전문.

91) 상계서, 七月~八月, 13번째 전문.

## V. 제주도에 구축된 군사기지와 그 전략

### V.1 해군의 제주결전준비

#### V.1.1 제주도항공기지(모슬포비행장)와 첫알오름의 지하소개시설

모슬포 해군항공기지는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인도차이나반도마저 점령하기 위해 중국본토를 침공할 전초기지(도양폭격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926년부터 1930년까지 큐슈의 사세보(佐世保) 해군항공대에서 건설하기 시작했다. 1차의 규모는 약 20만평의 부지에 활주로 길이 800m 규모의 공사였다.

1차공사가 끝난 후에는 오무라(大村)부대의 소수 경비병만이 주둔하였으나,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도양폭격의 필요성이 해군에서 대두되게 되자 1931년부터 1937년까지 확장공사를 하였다.

1937年 8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약 3개월간 도양폭격을 실시했다.<sup>92)</sup> 이 기간 동안 모슬포 항공기지 주둔 병력은 경비부대에서 공격부대로 전환되어 대촌해군항공대 2500여명이 주둔하였고, 전투기도 당시의 최신형으로 항속거리가 뛰어난 96式陸上攻撃機 25대를 배치하여 남경공격을 감행하였다.

모슬포 해군항공기지 건설 초기의 부대시설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방위성 방위연구소 전사실(防衛廳 防衛研究所 戰史室) 자료 『⑥土木 建築 41 昭和 20.3.20 鎮海警備附管區 作戰施設工事 現況報告 濟州島 海軍 航空隊』에 나와 있는 공사현황과 자료 『①引渡目錄 4 鎮海警備府 引渡目錄 3/3 濟州島航空基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종전 후 미 연합군에 넘겨준 인도 목록상 대부분의 시설들이 1944년 후반부터 1945년 종전까지 부대시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볼 때, 2차 건설공사까지는 항공기지의 시설은 극히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미 연합군의 반격에 밀리면서 해군은 계속 유력한 함정들을 잃고 있었고, 남은 함선마저도 운항연료의 부족과 수리 등으로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육상병력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해군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길은 본토결전에서 공중, 그리고 해상특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모슬포의 제주도 해군항공기지 시설 제3차 확충공사가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1944년 10월 상순부터이다. 약 220여만㎡로 확장할 예정으로 이 건설에 임한 부대는 진해경비부의 시설부 제201부대였다. 이 부대의 편제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92)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中國方面海軍作戰(1)』,朝雲新聞社, 1974年.

않지만,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본군에 의해 남태평양상의 많은 섬을 점령한 후 전진기지화를 위해 비행기지를 긴급으로 건설했던 설영대와 같은 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본토의 설영대 규모로 봐서 약600여명 규모의 부대라고 여겨진다.

이 설영대에도 우리나라 징용병사 및 건설 기술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 내의 예로 보면, 설영대 밑에 해군 군속이나 민간 토목회사의 노동자 형태로 많은 조선인이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중에는 강제징용자도 많았는데,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고, 많은 국민이 강제연행 및 징용당하여 진지구축에 임해야 했다.<sup>93)</sup>

패전시 제201부대의 미연합군인도 목록에 스코프(소형 삽)가 2,390개, 탄광용 곡괭이가 1,475개, 모포가 2,322매 등이 기록되어 미연합군에 전달된 것으로 봐도, 시설부 제201부대 직속 병사이외에, 제201부대가 설영에 임했던 5개소의 특공기지를 포함해서 당시 제주에 동원된 우리나라 강제연행 노동자수는 2,500여명 전후가 노역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94)</sup>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 『제주도 항공기지시설위치도(濟州島 航空基地施設位置圖)』에 공원 숙소는 16동으로 나와 있다. 『제주도항공기지』의 별지에도 숙소는 15동이다. 상당수의 주민이나 징용자들이 항공기지 확장작업에 동원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진지동굴의 천정이나 측면 벽을 탄광용 곡괭이로 정형을 만들고 천정이 붕괴할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갱목을 세웠다. 지금도 제주도내의 모든 진지동굴 및 해안의 특공용 동굴의 벽면에는 갱목을 세웠던 흔적과 함께 탄광용 곡괭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제주도 항공기지 제3차 확장공사는, 연료 지하격납고의 굴삭공사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료 지하격납고 자리는 종전 후 파괴되어서, 현재도 그 자리 명확히 움푹 파인 상태로 남아있다.

11월부터는 미연합군의 공습으로부터 은닉하기 위한 유개엄체호의 건설도 시작된다.<sup>95)</sup> 엄체호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내부에 격납하는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93) 佐用 泰司, 『海軍設營隊の太平洋戦争』光人社, 2001年.

94)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⑥土木建築・41 昭和二〇.三.二〇 鎮海警備府管區作戰施設工事現況報告濟州島海軍航空隊』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

형태나 크기가 달라진다. 또한 활주로로부터 엄체호까지는 유도로가 만들어져, 이를 통해 항공기가 왕래한다. 엄체호<sup>96)</sup>가 만들어진 것은 미연합군의 공습을 받고나서부터 인데, 이것을 짧은 시일 내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강제 동원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sup>97)</sup>

모슬포 알뜨르 항공기지의 경우, 1944년 말까지 유개형 엄체호 20동, 무개형 엄체호 22동이 완성된 것으로 나와 있다.<sup>98)</sup> 그 중 유개형 엄체호 19동은 현재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sup>99)</sup>

---

95) 도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모든 진지에 관한 자료에서 유개엄체호를 격납고라고 칭하고 있으나, 이는 엄체호와 격납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료되며, 당시 일본군이 작성한 축적지도 및 보고서에도 엄체호와 격납고는 별개의 것이고, 실지 모슬포 항공기지에는 지금도 유개엄체호와 격납고는 별개로 현존하는 시설이다.

96) 엄체호의 종류로는 다음의 3종류를 들 수 있다.

1) 유개형

활주로의 주변에 만들어졌고, 엄체호의 방향은 부근에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복수의 엄체호가 동시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축조되었다. 구조는 시멘트 콘크리트 제로 철근을 30Cm 정도의 간격으로 넣어 강도를 보강하였으며, 상부에 복토를 1m 정도한 다음 잔디 등을 심어서, 상공에서 보면, 작은 산처럼 보이도록 위장했다. 방어력은 기총소사에는 견디지만, 폭탄의 직접 피격에는 파괴된다.

2) 무개형

무개형은 지붕이 없는 형태로써, 콘크리트 등의 물자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기간도 짧고, 축조기술도 그리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엄체호로는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ㄷ자형으로 흙벽을 만들어서 내부에 항공기 격납용으로 한 것이다.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1945년 5월 1일자의 지도에는 무개엄체 22동(艦攻用-10棟, 零戰用-12棟)이 나와 있는데, 종전 후 전부 해체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지금은 농사용 토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개엄체인 경우, 부근에 떨어진 폭탄의 폭발이나 파편을 막을 수 있고, 내부에 직격탄을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방어를 기대할 수 있다. 위장으로 항공기와 엄체호에 풀등을 덮었다.

3) 임시형 (은폐형)

지형지물을 이용한 것으로 주변에 나무나 대나무 등을 심어서, 그 안에 기체를 숨기고 상부에 풀등을 덮어, 위장하는 것에 의해서 적기에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방어력은 없다. 어디까지나 임시용으로, 유개형, 무개형에 은폐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급조해서 사용되었다.

97) 현재 1개의 유개엄체호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라는 원형의 표시가 붙어있고, 그 내용 중에 1937년에 축조되어진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1944년에 축조되어진 것을 잘못 표기하고 있다.

98)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⑥土木建築・41 昭和二〇.三.二〇 鎮海警備府管區作戰施設工事現況報告濟州島海軍航空隊』.

99) 1동은 사유지에 있었던 것인데, 해방 후 국방부 관리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해체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실지로 당시 일본군의 1/5000 지도상에 나와 있는 위치 부근에 엄체호를 파괴한 시멘트 덩어리 파편이 남아 있다.

이 유개엄체호는 제로센(零戰-零式艦上戦闘機)용으로, 6동은 1944년 11월 말까지 완공하였고, 나머지 14동은 12월 말까지 완공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현재 모습포에 남아있는 유개엄체호의 형태는 2가지인데, 후미부분이 막혀있는 형태와 후미부분이 트인 형태로, 전자는 11월말까지 공사를 마친 6동으로 추정되며, 후자는 12월 완료한 형태로 추정된다. 대체적인 크기는 전면부의 가로 길이는 17~8m 정도이고, 후미까지는 11m 정도, 높이는 3m 50cm 정도의 규모로 축조되었다. 일본 해군의 제로센(零戰) 제원이 전장이 9.05m, 전폭이 12m이다. 또한 전면상단부의 건설형태가 일직선이 아닌 것은 당시 일본해군에서 생산했던 항공기의 프로펠러 때문인데, 일본 내의 해군항공기지의 모든 엄체호도 같은 형태로 축조되었다.

1945년 2월 하순에는 거주시설, 창고, 치료시설, 프로펠러 조정장, 발동기정비장, 계기시험장, 토목·금속공장 등을 소개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지하동굴 굴삭이 시작된다. 3월 20일 시점의 계획에는, 연장합계가 약 1.3km였다. 그러나 5월 1일의 「제주도항공기지위치도(濟州島航空基地位置圖)」를 보면, 첫알오름의 지하시설은 어뢰고, 연료고, 통신소, 고각포지휘소가 들어가 있고, 이 시점에서의 총연장은 1.2km 정도라고 추측된다.<sup>100)</sup>

4월 8일에 「본토항공기지 사용에 관한 육·해군 협동요령」이 결정되어, 해군기지 중 육군이 공용하는 것에, 제주도항공기지가 나와 있다.<sup>101)</sup> 5월 5일자 제17방면군 작전명령갑 제58호에 의해 「제58군사령관은 제주도소재 해군 항공특공기지 부대(경비부대를 제외)를 육상작전에 관하여 지휘한다。」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지시에 의해 육군이 「해군의 육상방비계획 및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해군 부대에 지시」할 수 있도록 되었다.<sup>102)</sup> 그러나 이 「본토항공기지 사용에 관한 육·해군 협동요령」이후도, 이 첫알오름의 지하공사는 해군의 손으로 진행되었다.

지하 소개시설의 굴삭 이외에도 유개엄체 10개소가 증축되고, 흙벽으로 된 무개엄체도 22개소가 축조되고, 통신 수신소, 송신소, 비행대 지휘소, 자력발전소등의 건물들이 콘크리트구조물로 축조되었다.

이 당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토항공기지 사용에 관한 육·해군 협동요

100)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①引渡目錄・2 鎮海警備府引渡目錄1/3 昭和二十年九月鮮內各地施設機械引渡ニ關スル件報告』, 뒷편 별도의 지도중.

101)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대본영(大本營)陸軍部<10>-昭和二十年八月まで』 朝雲新聞社, 昭和五十年, 173쪽.

102)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五月 -, 21번째 전문.

령」에 의해 제주도내의 육상 전 부대를 지휘 총괄했던 제58군 사령부수뇌부는 해군의 제주도항공기지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7월 30일에 조선군관구 사령부가 낸 「군령부원과의 연락사항」에는“해군의 비행부대 운용을 감안하여 필요도가 낮은 기지는 가능한 한 사전에 파괴할 것, 특히 모슬포”라고 하고 있다.

미 연합군의 상륙예정지점과 지근거리에 있어서, 잘못하면 바로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은 기지를 육군은 처치 곤란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03)</sup>

대본영(大本營)은 모슬포 해군 항공기지를 포기하고 후퇴 배치할 경우 이 항공기지가 미 연합군이 쉽게 점령하게 되고, 이를 복구하여 항공기지로 활용할 경우, 일본전역이 B-29의 완전한 제공권에 들어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토에 대한 미 연합군의 상륙을 자초하는 것이 되므로, 대본영(大本營) 군 수뇌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도록 제17방면군을 통하여 제58군사령관에게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제58군사령관은 독립혼성 108여단 2개 대대로 하여금 송악산 북측사면(해군항공기지가 보이는 사면) 해발 60m 부근에 수비용 진지동굴을 파서 대비하였다.

### V.1.2 해안 특공기지의 건설

항공기지 시설과는 별도로, 2월에 해안선에서 해상특공용기지 건설이 5개소에서 시작되었다. 패전시 수도식(隧道式-동굴형태)의 면적은 기록상 고산 수월봉이 760㎡이고, 송악산 해안이 550㎡, 함덕 서우봉이 730㎡, 서귀포 삼매봉이 900㎡, 성산 일출봉이 900㎡로 되어있다.<sup>104)</sup>

그러나 현지조사에서는 송악산의 경우 20m가 채 못 되는 곳이 10개소, 40m가 채 못 되는 곳이 4개소, 조금 떨어진 장소에 더욱 큰 것이 2개소가 있다. 주민과 향토사학자들이 동굴이 15개가 있어서 일명 “일오동굴”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니, 제2번 굴(편의상 산이수동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번호부여)과 제4번 굴 사이의 제3번 동굴은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진

103)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게서, 七月~八月.

104)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⑤航空基地・86 北緯三十八度以南に於ける朝鮮航空基地調書. 鎮海警備府』別紙 第2.

양기지설정요령(震洋基地設營要領)이나, 회천기지시설규준(回天基地施設規準)을 참고로 했을 때, 축조 당시 창고용(길이 4~5m)으로 축조되었으나, 지반침하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또 제5번 굴과 제6번 굴은 H자 형태로 이어져 있고, 주변의 다른 동굴보다 높게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해안특공기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소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9번 굴과 제10번 굴 사이에는 상부로부터 약 20여m가 무너져 내린 상태인데, 함몰부분을 정밀히 보면 동굴 흔적이 남아있다. 또한 제11번 굴과 제12번 굴 사이에도 상부로부터 무너져 내린 흔적이 있다. 여기도 적어도 1개 이상의 동굴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전사실의 자료 중 우라토(浦戶)의 카이텐 기지도를 예를 들면, 동굴은 총21개소인데, 회천용 격납고는 7개소, 송신소, 지휘소, 연료격납고, 전원실, 수신소, 펌프실, 발전실 각 1개소, 어뢰격납고가 7개소로 나와 있다. 해안특공기지 축조시(震洋隊나 回天隊 공히)의 동굴 수는 대체적으로 1개기지에 18개소에서 21개소가 축조되었다. 역시 송악산 해안특공기지의 경우도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18~19개소였다.

성산 일출봉의 경우는 1945년 4월 9일, 진해방수부(鎭海防守府) 산하의 진양돌격대(震洋突擊隊) 제45대(지휘관 村山六四郎)가 배치되었다.<sup>105)</sup> 일출봉 남측해안(성산포로 진입하면서 오른쪽인 유람선과 유람용 모터보트를 승선하는 곳)을 따라서 21개의 인공동굴이 남아있다. 부두로부터(서→동) 첫 번째부터 9번째 굴까지는 나머지 동굴에 비해서 길이가 반 정도인 13~14m이고, 나머지 동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26m~31m 정도의 비슷한 크기로 남아있다.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의 자료에 의하면 제1번 굴에서부터 제9번 굴까지는 지휘소 및, 식량저장고, 발전소, 병사숙소, 정비소등 병대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위한 동굴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제10번 동굴서부터 제21번 동굴까지는 특공병기 진양정(震洋艇)<sup>106)</sup>을 격납했던 동굴로 길이가 비슷한 26~31m이다.

진양의 전장이 5.1m 정도여서, 한곳의 동굴에 3척정도 격납하였고, 한 지역에 30~35척이 배치되었으며, 제주도에 진양특공정이 성산(진양 45대), 서귀포(진양 119

105)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④特功26震洋26 震洋配屬 現況一覽』.

106) 진양정의 제원은 전장 5.1m, 중량 1.4t, 엔진 수 1(토요타자동차의 80마력 중고엔진), 속도 23노트(나중에 28노트), 장착폭약 250Kg, 탑승원 1명(진양 1형. 5형인 경우 搭乗員 2명), 선체는 당시 철판이 모자란 것도 감안하고 선체를 가볍게 하기위해 베니어판으로 제작했다.(최초에 해군에서 특공병기로 개발했을 때는 ④艇이었음)

대, 지휘관 -田中有久), 고산(진양 120대, 지휘관-小野太郎, 공히 배치는 4월 9日)에 합해서 약 100여척이 배치되었다.<sup>107)</sup>

성산 일출봉인 경우 제10번 동굴 앞에서부터 마지막 동굴 앞부분에는 당시 진양정의 인양 및 활강을 위하여 축조했던 시멘트제 활강대의 조각(자갈과 함께 붙어 있는)들이 많이 보인다. 일출봉에서는 해군시설부가 「전남 화순이나 강원도의 탄광 기술자들을 강제징용 후 주야 강행으로 특공용 굴을 팠다는 증언도 있다.

4월 8일의 「본토결전에 관한 육·해군 합동요령」의 성립과 때를 같이하여 오이가와 군령부장으로부터 「해군특공기지 설정개요(海軍特功基地 設定概位)」의 지시가 내려졌다. 그 지시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고류(蛟龍), 카이류(海龍), 카이텐(回天), 신요(震洋)와 주요한 해상특공병기 모두가 배치될 예정이었다.<sup>108)</sup> 이들 전 종류의 해상특공병기를 갖추는 계획이 내려진 장소는 일본 전 지역을 포함하여 10개소 밖에 없었다.

그러나 7월 27일 현재 제주도에 배치되었던 것은 진양 100척 뿐으로, 4월 상순~하순에 걸쳐서 제45진양돌격대가 일출봉에, 제119진양돌격대가 삼매봉진지에, 제120진양돌격대가 고산 수월봉에 배치되었다.<sup>109)</sup>

## V.2 육군의 군사기지 구축

### V.2.1 해군과 육군의 갈등

육군과 해군 간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별도의 결전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육군과 해군이 하는 일마다 대립하고 있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제주도에서도 육군은 자주 해군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4월 9일 제96사단장은 제주도 남부지구 축성 및 시찰을 나서 13일 귀임 후 제17방면군 참모장 앞의 정례보고에서“제주도의 해군특공기지 동굴은 외해와 마주하고 있어서 외해로부터 직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관찰된다(병단장 도내 순시의 조언)”라고 보고했다.<sup>110)</sup> 이에 해당하는 특공용 진지동굴은 서귀포 삼매봉에 축조된

107)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④特功26震洋26 震洋配屬 現況一覽』.

108)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대본영(大本營)海軍部·聯合艦隊<7>』, 朝雲新聞社, 1976, 319쪽.

109)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④特功26震洋26 震洋配屬 現況一覽』.

110)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四月, 56번째 전문.

진양대 특공기지라고 판단된다. 삼매봉의 특공용 동굴인 경우大本營(大本營)의 진지 구축법에 명시된 규정대로 동굴구축을 한 것이 아니라 서귀포 앞바다에서 정면에서 보이게 축조했다.

6월 16일 동경에서 제17방면군 참모장 앞으로 보낸 제주도에 관한 지시사항 전보문에는 “해군 항공기지의 무용공사는 중지하도록 해군에 교섭 중”이라는 전보문도 있다.<sup>111)</sup>

## V.2.2 육군의 비행장 건설

육군도 제주도에 독자적인 비행장을 건설하였다. 비행장 건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V.2.2.1 정드르 비행장 (현 제주국제공항)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본토 내 태평양방면 각 현마다 비행장 적지에 해군항공기지, 육군 비행장이 전략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제주도에도 알뜨르 해군항공기지에 이어서 제주도에 육군 비행장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드르 비행장이다.

1942년 1월 당시 제주항 서쪽 약 5Km거리의 평지에 면적 40만평 규모의 서비행장(동비행장은 삼양 - 신촌간 개설하던 진드르 비행장. 뒤에 기술)이다. 당시의 다른 비행장과 마찬가지로 활주로는 잔디였으며, 15평 규모의 콘서트 건물만을 갖춘 비행장이었다.

주민에 증언에 의하면 도두의 용천수를 도두봉 정상에 저수조(지금은 저수조가 메워져 흔적조차 없다)로 끌어올려졌고, 도두봉 정상에서 토관을 정드르 비행장까지 매설하여 식수를 급수했다는 증언이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7월 중순~8월)에는 비행장이 계곡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였으나, 모슬포항공기지과 마찬가지로 미연합군의 수중에 넘어갈 경우, 일본전역이 제공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염려한大本營(大本營) 수뇌부의 지시에 의하여 제96사단이 사수하게 되었었다.

---

111)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六月, 72번째 전문.

### V.2.2.2 진드르 비행장(제주 동비행장)

일본육군은 1943년 비행훈련과 군수품 보급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의 제주시 삼양동과 조천읍 신촌리 사이 속칭 진드르 지역(지금 삼양 검문소 - 신촌리간 12번 국도일대)의 90만평에 제주 동비행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해방이 될 때까지 공사를 했다. 1943년 3월부터 일일 연 500여명의 도민을 동원하여 비행장 개설공사를 추진하다가 1945년 6월 패전기미가 역력해지자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 이 진드르비행장은 서비행장보다 규모가 큰 활주로 2기를 가졌고, 부속시설공사도 진행된 기록이 남아있다.<sup>112)</sup>

이 공사에는 제주도 전역에서 공사인부를 강제 징용하여 실시하였고, 이 지역이 비행장부지로 설정된 이유는 제주항에서 가깝고, 평탄한 지역이 넓어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 서비행장과 마찬가지로 육군비행장이었으며, 본토결전 말기 미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제96사단의 유력부대가 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1945년 4월 13일자 기밀작전일지에 제17방면군 참모장이 제58군사령관에게 지시한 築參電 제3000호에 「17方 作命丁 제8호에 의한 참모장 지시」에는

“① 軍作命甲 제9호에 의거하여 제주 동비행장의 설정요원중 제2활주로 및 이와 관련한 유도로, 항공기 업체(콘크리트제) 10개의 부비를 일시 중지하고, 새로이 항공기 계류지(비밀지) 20개분을 추가함

② 비행장 계류지의 위치는 철저히 비밀하도록 제58군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함”

이라는 보고문이 있는데, 제주 동비행장에는 제1, 2 활주로 및 상당수의 부속시설을 갖춘 비행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연합군의 본토 주변에 대한 공세가 치열해짐에 따라 종전이 임박해서는 진행 중이던 공사의 중지를 연구 중이라는 기록도 있다.<sup>113)</sup>

### V.2.2.3 교래리 비밀 비행장

일본군은 필리핀 해전과 이오지마(硫黃島)의 전투에서 상당부분의 항공기를 손

112) 변승규, 전개서, 1992, 1120~1125쪽.

113)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개서, 六月, 72번째 전문.

실당하고, 미연합군의 B-29 및 P-51의 일본 내 군 주요시설 및 비행장에 대한 공습으로 항공 전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잔존 항공기를 온존시켜(연습용 항공기도 포함) 연합군의 본토 상륙시 일거에 항공기를 총동원하여 상륙부대나 기동선단에 대한 카미카제식의 기습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기존 비행장이 아닌, 새로이 비밀비행장을 비밀리에 준비하도록大本營(大本營) 수뇌부는 지시하고 있다.

제주도에도 어김없이 1945년 6월14일 제17방면군 참모장으로부터 「築參電 제6921호 - 17方作命甲 제188호」로 지시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14)</sup>

“제58군 사령관은 교래리 부근에 별지 요령에 의거하여 비밀 비행장을 설정한다.

별지

(1)규모

- ①활주기지는 100×1000, 50×900의 2분
- ②수용동굴은 200명분
- ③연료, 탄약동굴(연료 400, 탄약 5회 출격분)
- ④항공기 격납

(イ) 동굴은 중급 연습기(翼モギ) 12대분

(ロ) 비밀 위치 30 기분

그 외의 소요시설

(2)완성은 6월말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6월 중순 육군에 의해서, 조천읍 교래리 부근에 제주도의 네 번째 비행장 건설이 계획된다. 지금까지처럼 해안부가 아니고, 내륙에 만들어진 비밀비행장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활주로는 1000m×100m와 900m×50m, 비행장 관련 인원수용 동굴 200명분, 연료동굴에 연료 400분분, 탄약 5Ton분, 항공기 격납동굴 12대분 등의 지하호도 부속시킬 예정이었다.<sup>115)</sup>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건설개시가 늦어져 철야공사로 7월말에 완

114) 상계서, 六月, 60번째 전문.

115)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六月, 63번째 전문.

성됐으리라 짐작된다. 현재, 교래리에는 대한항공의 조종사양성훈련장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행장과 마사회 육성마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평지가 있는데, 당시의 비행장 부지를 재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7월31일자 기밀작전일지 중 柴濟連電 제76호 회신 내용에 “제주도 동부 및 남부지구에는 각 1개 대대를 배치하여 교래리 비행장의 직접 엄호 및 상륙하는 적군의 행동방해에 임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비행장은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sup>116)</sup>

### V.3 진지 구축과 조선인의 동원 피해

#### V.3.1 조선인의 징병과 동원

1938년 2월 특별지원병에 관한 각의 결정으로 「쇼와 13년 2월 칙령 제59호에 의해 조선 특별 지원병령」이 공포되자 600명이 선발되었고, 1938년 4월부터 군참모장이 위원장이 되어 군 및 조선총독부 관계위원으로 편성된 검사반을 각 도지사가 추천한 지원자에 관하여 제1차 전형검사를 행했다. 여기서 선발된 합격자를 총독부 관할하의 훈련소에 수용하여 약 6개월간의 준비교육을 실시한 후 다시 군에서 제2차 전형을 실시하여 병종을 결정하고 그해 12월부터 일본인 장정과 함께 입영시켰다. 경성에 조선총독부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를 창설하고, 이후 채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다시 평양에 훈련소를 증설하였으며, 군은 본 훈련소에 예하부대 장교, 하사관, 병을 파견하여 훈련에 협력했다.

1943년까지 해마다 특별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총16,830명을 입영시켰으며, 여기에 1943년의 학도동원 3,893명까지 해서 총20,723명이 일본군으로 선발되었다.

1944년부터 조선에서에서 정식으로 징병제도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44년도에 조선인 55,000명이 징병되어, 동년 9월에 입영했다. 단, 그것은 갑종합격 현역병 징병자만의 숫자이며, 갑종합격이 못된 제1을중 이하의 사람들은 보충병역에 편입되어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 전시요원으로 충당되어지게 되었다. 1945년에도 55,000명(육군 45,000명, 해군 10,000명)이 현역병으로 징집이 되어 입영한 기록이 있다.<sup>117)</sup>

지하호를 포함한 진지구축의 전문부대인 특설부대는, 전시의 목적에 응해서 임시로 편성하는 부대를 말하는데, 전쟁말기에는 육상근무대(陸上勤務隊), 해상근무대

116)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七月~八月, 7月 31日字 전문.

117) 宮田 節子, 전계서, 77~89쪽.

(海上勤務隊), 특설근무대(特設勤務隊) 등의 명칭으로, 항만노동이나 물자수송, 진지구축에 임하는 작업부대가 만들어졌다. 1945년 3월 야전근무대(野戰勤務隊, 육상근무대와 해상근무대의 총칭)의 임시동원요령이 발령되어, 근무대 정원 중 약 2할은 내지인을, 8할은 조선인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들 부대의 많은 요원은 보충병역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sup>118)</sup>

그 중에는 갑종 합격 병사들이 남방으로 파견될 예정으로 전용된 사람도 있었다. 앞서의 근무대 정원규정에 따르면, 제주도의 제1특설근무대의 병사 중에도 많은 조선인이 보충병역이나 근무병의 명목으로 소집됐을 것은 틀림이 없다. 특설육상근무대 제110중대, 육상근무 제166중대, 제167중대, 독립공병 제126대대, 제127대대도 이런 부대였다.

또한 1944년 말부터 조선군(다음해 2월부터는 조선군관구)이 편성한 부대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그들은 특별지원병령에 의해 소집된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조선군, 조선군관구가 편성, 제주도에 배속한 부대를 열거해보면 특설육상근무 제110중대, 육상근무 제126~127중대, 특설근무 제4~13중대, 독립산포병 제20연대, 박격포 제29대대, 독립공병 제126~127대대이다. 병력 수는 합계 약 14,000여명이 된다.

더욱이, 이들 부대가 조선인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음의 것으로도 증명된다. 방위청 방위연구소 소장 『1945年 部隊 行動表 北鮮課』의 「제17방면군 행동개요」에 의하면 「중전 후 조선인에 대해서는 북선, 남선 공히 방면군 명령에 의해 각부대별로 그 주둔지에서 소집을 해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58군 직할 포병관계의 부대도 한반도 본토로의 상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다. 중전 후 부대상황 기록이 없는 부대는 현지에서 소집해제됐다고 생각해도 좋다.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은 편성시기 및 편성지를 분석하면, 조선인 병사는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V.3.2 미군 공습에 의한 조선인 피해

제주도로의 인원 및 물자 수송은 주로 여수항, 목포항에서 행해졌다. 따라서 수송로의 길목인 제주해협에 미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118)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전계서, 84쪽.

1945년에 들어서자 제주도 부근 바다에 미연합군 잠수함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 육군은 2월 16일 「대한해협방면 선박지대 설정요령」을 발령하고 여기에 대해 보려고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5월에 들어서 미연합군 함상기가 자주 한반도남부로 출몰하고, 기뢰봉쇄와 공습으로 해상교통의 방해를 기도하였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함선과 함께, 제주도로 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 함선에도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5월 7일에는 제주도 각 항구의 선박엄호를 위하여 제주항에 야포 2문, 기관총 6문, 한림항에 야포 2문, 기관총 6문, 서귀항에 산포 2문, 기관총 6문을 배치하여 미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하였다.<sup>119)</sup>

5월 18일에는 발연통을 선박부대에 교부하여, 공습시에 연막구성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sup>120)</sup>

일본 해군의 전사기록에 독립야포병 제6연대의 일부 인원과 제64병참병원의 일부도 미연합군의 공습으로 수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독립야포병 제6연대는 7월 10일의 사키지마마루(先島丸)에 승선 후 제주해 부근에서 미연합군기의 공습으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수는 불확실하다.<sup>121)</sup>

제64 병참병원은 6월 7일경 아즈사마루(梓丸)에 승선하여 제주해 북방에서 공습을 받아 부대인원 400여 명 중 반수 가까운 인원이 수몰되었다.<sup>122)</sup> 이들 미 잠수함의 어뢰공격과 함상기에 의한 공습은, 일본군과 함선에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제주도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7월 6일에는 한림항 매립지의 군 창고가 공습을 받아 창고내의 폭탄이 폭발하여 사망자 30여명, 부상자 200여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제주시 산지항 부근의 동양척식 알코올 공장과 군수공장도 연일 기총소사에 시달려야 했다.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피난민을 태운 선박을 향한 공습과 기뢰 피해이다.

### V.3.3 전쟁 말기 제주도민 소개문제

1945년 제주도 인구는 23만여 명이였다. 거기에 7만 명이 넘는 군인이 불과 몇

119)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五月, 28번째 電文.

120)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五月, 80번째 電文.

121) 駒宮眞七郎, 『戰時船舶史』, 1991.

122) 상계서, 1991年.

개월 만에 제주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가장 큰 문제가 식량문제였다. 또한 미연합군의 상륙이 감행될 경우 주민들의 동요나 반란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본영(大本營) 육군수뇌부는 본토결전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에서 주민 특히 노인, 부녀자, 어린이들을 한반도 본토로 피난시키는 편이 군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보다 작전상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제주도 자체에서 생산한 곡물로 식량자급이 안 되는 현실에 7만 5천이라는 군인이 집결해 있어서, 본토로부터 군수물자의 반입도 어려운데, 식량수송까지 해야 되는 한정된 섬에서 군의 식량 확보 필요성이다.

둘째는, 작전수행상의 상황이다.

일본군 수뇌부가 조선인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오키나와(沖繩)전에서 경험한 일본군에 의한 오키나와 주민에 대한 직간접으로 살해가 일어났던 예이다. 제주도민들이 미연합군에 밀통한다든지 투항해서 제주도내의 특공기지나 군사시설에 대한 군사기밀이 새는 것을 두려워했다.

또 일본군에 포함되어있는 조선인 병사가 자신들의 부모나 가족 등, 동포가 죽어 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는 전의를 상실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을 고려했다.

군사자원화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주민만을 남기고 전장으로부터 소개시키려 했다. 결코 인도적인 입장에서 나온 소개계획이 아닌, 일본군의 작전 수행상 필요성 때문이다.

제주도 주민을 본토로 주민소개가 문제된 것은, 본토결전을 위한 대규모 부대인 제58군사령부, 제96사단 등이 제주도로 파견되고 나서이다.

4월 23일, 제17방면군 참모장으로부터, 제96사단 참모장에게 “제주도의 주민처리 특히 육지로 피난 이주시켜야하는 인원수송과 관련하여 대략의 인원수와 수송시기에 관하여 알고 싶다”라는 전보가 자료에 나와 있다.<sup>123)</sup>

실지로 5월 7일 당시 제주-목포 간 정기선이었던 고와마루(晁化丸. 383t)에 도민 700여명(도내 거주 중이던 일본인도 포함)의 소개민을 승선시켜 목포로 향하던

---

123)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四月, 122번째 전문.

중 추자도부근에서 미공군기의 공습을 받아 50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고와마루는 갑판을 천막으로 덮고 있어서 수송선으로 오인한 미연합군이 공습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 조난사건으로 인하여 도민소개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24)</sup>

5월 22일 자료에는 제17방면군 참모장이, 제58군사령부 참모장에게 “주민처리에 관해서 총독부를 독촉 중으로 근일 중에 결정 반전한다.”라는 회신전문도 있는데, 도민 소개문제는 꾸준히 연구 중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sup>125)</sup>

6월 1일에 우메즈 참모총장이 경성에 잠시 들렀을 때에, 제17방면군의 보고를 받은 후 “제주도민 23만 명(노인, 어린이 5만 철수)”라는 메모를 참모총장 비서관이 남기고 있는데, 5월 이전에 피난계획은 세워졌으나,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sup>126)</sup>

『조선에서의 전쟁준비』에는 “약 5만의 노인, 부녀자, 유아를 본토로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6월 이후 귀환선을 이용하여 수송을 개시하고, 그 외는 군과 작전행동을 같이하여, 전도일치 적을 격파하는 것으로 결정...이렇게 해서 제1회 피난주민 약 500명의 조난에 따른 피난민 수송은 중지하게 이룸”이라고 되어 있다.<sup>127)</sup>

한편, 제2차 소개선인 호요마루(豊榮丸. 784t)는 육군 징용선으로, 군수물자를 거의 정기적으로 제주도에 수송하고 있었음은 『기밀작전일지』에도 자주 기재되어 있다. 이 선박은 7월1일 제주항에서 군인, 군속, 소개민 등 450여명을 싣고 목포로 향하던 중 7월 3일 진도 동남방에서 기뢰에 부딪혀 침몰했다. 280여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한다.<sup>128)</sup>

미야자키 참모본부 제1부장이 호요마루 사고 직전인 7월 초순 제주도 시찰시에 “도민소개 4만인 중 현재 5천인”이라는 수기를 남기고 있다.<sup>129)</sup> 필자는 소개계획이 구상된 것은,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전투사단인 제96사단이 파견되면서부터이며, 이후 수송선이 피습에도 구애됨이 없이 군인과 군수물자 수송선 귀환시에 공선에 부녀자나 노약자들을 계속해서 소개시켜 왔기 때문에 5천명이라는 메모가 나온 것으

124) 山辺 愼吾, 『濟州島, 豊榮丸遭難事件』, 彩流社, 1999, 66~67쪽.

125)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五月, 74번째 전문.

126)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전계서, 291쪽.

127) 宮田 節子, 전계서, 189쪽.

128) 山辺 愼吾, 『濟州島, 豊榮丸遭難事件』, 彩流社, 1999年, 70~72쪽.

129)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大本營(大本營)陸軍部<10>-昭和二十年八月まで-』, 朝雲新聞社, 昭和五十年, 299쪽.

로 추정한다.

한편, 제주도로부터 주민을 소개시키려고 했던 계획과 동시에, 제주도로 귀환하려고 하는 주민의 저지도 계획됐었다.

1920년대부터 많은 도민들이 일거리를 찾거나, 돈벌이를 위해 도일하였다. 도일한 대부분의 도민들은 오사카에 거주했다. 당시 제주-오사카 간 정기여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제주항만이 아니라 도내의 소규모의 여러 항에도 기항을 한 다음 오사카로 향했다.

45년 3월부터 B-29에 의한 일본본토의 대도시 공습과 특히 3월 13~14일 양일간에 걸친 오사카대공습의 피해를 받은 도민들이 가장을 잃든지 집이나 가재도구들을 소실당하여, 공습에 대한 공포로부터 귀도를 하기 시작했다. 1944년 10월부터 45년 1월까지의 4개월 사이에 일본본토로부터 귀도자가 577명이었던 것이, 3월 한달 동안에 1,584명, 4월에도 20일까지 1,713명에 달했다.

『기밀작전일지』 4월 24일자에 제주에서 육군성 참모장 앞의 전문에서 “오사카-목포-제주행 선박을 이용하여 다수의 이재자(離災者-여자아이를 주로 해서)들이 내지로부터 매회 천 수백 명, 목포로부터(매회 2~3백 명) 제주도로 귀환하고 있음. 본도로부터 노인, 어린아이의 본토방면에 대해 피난에 관해서는 별도로 고려해야하며, 우선 이재자의 입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처치바람”이라고 나와 있다.<sup>130)</sup>

또한 “장래 전장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입도자를 제한, 저지하도록” 조선군관구 참모장으로부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제주도 입도자 제한에 관한 건 통첩」이 4월 28일에 내려졌다.<sup>131)</sup> 귀향하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었다.

미연합군의 상륙이 감행되면 남은 주민에게는 전쟁협력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6월 8일에는 조선에서도 행정계통의 장인 면장이나 직장의 장을 대장으로 해서 국민의용대가 조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대원은 남자 14세부터 60세까지, 여자 14세부터 45세까지로 되어, 의용이라고 해도 불참가의 자유가 없는, 징용보다도 더 간단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sup>132)</sup>

130)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四月, 125번째 전문.

131) 상계서, 四月, 141번째 전문.

132) 宮田 節子, 전계서, 63쪽.

7월 31일 제58군사령부 참모장이 제17방면군 참모장 앞으로의 전보에서 “적 본토에 대한 상륙은 금년 초가을인 8월 하순이후로 판단되며, 도내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의 전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33)</sup>

현재의 도지사에게 해당하는 자리인 제주도 주재관이었던 치다 씨도 “제1회 피난민을 태운 선박이 조난당했기 때문에 수송은 일부에 그쳤고, 남겨진 도민들은 미연합군이 제주도 상륙시에 산으로 끌고 가서 군인과 행동을 같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sup>134)</sup>

제17방면군이 7월 30일 작성한 『조선을 중심으로 한 7월말경의 정세판단』이나 『작전준비촉진에 관한 방면군의 희망사항』은 외부에 공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방면군의 솔직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다. 길지 않은 문장인데도 조선인에 대한 불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sup>135)</sup>

“방면군은 필승방책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지만, 내심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후환이 두려운 감마저 든다. 일부 훈련하고 있는 장정은 기대를 갖게 하지만, 일반대중은 여전히 사대사상의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여,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어렵다. 만약 적기 폭격에 더해서 조선의 일각에 미연합군의 상륙을 보게 되면, 민심일반의 동요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으며, 태업 상황적 현상이 일어날 공산이 매우 크다. 미연합군이 상륙하면, 이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비교적 많음으로 주민에게 큰 기대를 갖지 못한다.”

만약 제주도에 정말로 미연합군이 상륙하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상기의 보고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제주도민의 수는 오키나와(沖繩)전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133)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상계서, 七月~八月, 124번째 전문.

134) 森田 芳夫, 『朝鮮終戰の記録』, 嚴南堂書店, 1964, 18쪽.

135)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전계서, 七月~八月, 7월 30日字 전문.

## VI. 결론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전쟁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섬에서, 전쟁말기 일본군 수뇌부에 의해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한 제주도를 대상으로, 당시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기초적인 사적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군의 전략을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일본군의 제주도 정책이 한국과 일본의 현대사에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관련 자료들이 조직적으로 파기되어<sup>136)</sup> 주로 일본 측의 문헌을 위주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방위성 전사실이나, 국회도서관 등을 찾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제주도가 본토결전에서 일본본토 이외의 지역 중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부상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쟁 말기가 되자, 일본의 함선은 군함, 항공모함 등의 전투용함선뿐만 아니라, 징용하여 수송선으로 사용되고 있던 민간선박도 미 연합군의 공군기 및 잠수함에 의해 철저히 공격을 받아서 침몰되고 있었다.<sup>137)</sup> 미 연합군에게 제해권을 제압당한 후, 남방으로부터의 본토결전을 위한 군수물자 수송은 두절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안으로 인도차이나반도를 거쳐, 한반도의 종단 철도를 이용하여, 일본 본토로 수송을 해야 하는데, 이 루트는 대한해협이 확보가 전쟁 지속의 생명선이 된다.

특히 간몬(關門)해협이 3월부터 기뢰 봉쇄를 당하고서는, 일본의 함선은 동해방면의 여러 항구로 수송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경우 제주도가 미 연합군에 점령당하게 되면, 동해에 잠수함이나 함선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게 되어 대륙으로부터의 군수물자수송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미 연합군이 일본 본토를 공략하지 않고, 제주도에 공해기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전쟁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일본군 수뇌부는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미 연합군은 최종목표가 수도 동경이 있는 관동 지방을 공격하기 전에 본토의 일각, 혹은 그 주변에 공해기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가

---

136) 제주도에서 미연합군이 일본 제58군사령관으로부터 정식항복문서에 날인 받은 것은 종전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난 9월 28일이어서 거의 모든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

137)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전계서, 398~406쪽.

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큐슈 남부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만약 큐슈 북부를 목표로 할 경우나, 혹은 한반도 남부를 목표로 할 경우 미 연합군은 제주도를 먼저 점령하고, 전진기지로서 제주도에 기설되어 있는 비행장을 이용하여 항공기지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전역은 B-29의 공습 가능권에 들게 되므로, 일본군 수뇌부는 제주도의 비행기지과 비행장 사수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셋째는, 소련의 참전이다. 일본군은 미 연합군이 조선을 장악하게 되면, 소련군도 참전한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소련이 참전한다는 것은, 소련을 통해서 은밀히 진행하고 있던 대서방 화평공작이 중단이 되고, 또한 전력 면에서도 일본군은 남북에서 대군에 밀리게 되어, 양면에 대한 전쟁계속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일본의 전쟁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가 일본군 수뇌부에게는 미 연합군의 제주도 상륙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제주도는 군수물자의 수송 통로, 제주도의 비행기지 사수, 소련의 참전에 대비하여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였고, 이에 해군과 육군 모두에 의해 1944년 후반부터 제주도 전역의 요새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일본군이 전쟁준비와 관련된 시기적 전개·시설의 개요에 관해서는 송악산 및 첫알오름과 산이수동 지역, 송악산 동측 해안에 해군 특공기지, 첫알오름 정상에 고각포 진지(4개소), 첫알오름 지하의 지하소개 시설, 어승생악의 토치카 유적과 지하의 진지동굴, 교래리 부근의 진지 동굴, 제주도 전역의 해안의 일정한 거리(약 8Km~10Km)에 위치한 환상형의 진지동굴, 성산 일출봉 해안과 서귀포 삼매봉 해안, 고산 수월봉 해안, 함덕 서우봉 해안 등의 해군 특공기지, 제주시 사라봉 및 별도봉 해안의 미군 방어 진지 동굴 등을 상당히 해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인 일제 군사시설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국내의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알드르 해군항공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에 대한 현지점에서의 실태 파악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진지 조사는 진지 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아닌 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현지 확인과 실측에 머무르고 있었다. 해

당 군사시설이 무슨 용도로 축조되었으며, 언제, 누구에 의해 시설되었는가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전쟁유적은 남겨진 실물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조사와 기록화가 실패 해명의 제1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전쟁유적의 조사와 기록의 누적, 전쟁 그리고 평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증언이나 문헌자료, 더욱이 유물 분석 등의 성과를 종합하여 전쟁의 실상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수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그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전쟁유적 학습이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참화를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도내에 남아있는 진지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하고 교육적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 진지를 평화학습의 장이나 관광의 한 패러다임(테마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진지에 대한 국민과 도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진지가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람도 유적·유물도 모두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져간다. 우리들은 지나간 역사발전의 결과로서 현재에 살고 있고, 미래에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제주도의 역사적 진지를 현재에 재조명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작업은 제주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변승규 『제주도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편제와 병사노무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임종국 『日本軍의 朝鮮侵略史Ⅱ』, 日月서각, 1989.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일본군 진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 2001.

### <일본문헌>

高山 信武, 『參謀本部作戰課の大東亞戰爭』, 芙蓉書房出版, 2001.

駒宮眞七郎, 『戰時船舶史』, 1991.

菊池 實 外, 『戰爭遺跡の事典 上・下』, 柏書房, 2002.

軍事史學會編, 『대본영(大本營)陸軍部戰爭指導班 機密戰爭日誌』 上・下, 錦正社, 1998.

宮田 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木村 禮子, 『海軍水上特攻隊震洋』, 元就出版社, 2004.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①引渡目錄・2 鎮海警備府引渡目錄1/3 昭和二十年九月鮮內各地施設機械引渡ニ關スル件報告』.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①引渡目錄・4 鎮海警備府引渡目錄3/3 濟州島航空基地』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④特功26震洋26 震洋配屬 現況一覽』.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⑤航空基地・86 北緯三十八度以南に於ける 朝鮮航空基地調書. 鎮海警備府』.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⑤航空基地・87航空基地圖(朝鮮・臺灣・支那方面) 濟州島航空基地位置圖』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⑥土木建築・41 昭和二〇.三.二〇 鎮海警備府管區作戰施設工事現況報告濟州島海軍航空隊』.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 『滿洲・朝鮮・199 昭和二十年部隊行動表 北鮮課』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滿洲・朝鮮・2 朝鮮軍歴史別冊 朝鮮人志願兵・徴兵の梗概』.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滿洲・朝鮮・22 朝鮮軍兵力配備圖』.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滿洲・朝鮮・64 機密作戰日誌(乙綴)』.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文庫・宮崎・73 本土決戦關係兵備綴』.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文庫・袖・178 第五十八軍(濟州島)關係復員資料』  
「第二百二十一師團復員資料」.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中央・軍事行政編成・63 第五十八軍編成人員表』.

防衛廳防衛研修所圖書館所藏軍事史學會,『機密戰爭日誌』, 錦正社, 1989.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대본영(大本營)海軍部・聯合艦隊 <7>』, 朝雲新聞社, 1976.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대본영(大本營)陸軍部<10>-昭和二十年八月まで-』, 朝雲新聞社, 1975.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대본영(大本營)陸軍部<9>-昭和二十年一月まで-』, 朝雲新聞社, 1975.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本土決戦準備<1>-關東の防衛-』, 朝雲新聞社, 1972.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本土決戦準備<2>-九州の防衛-』, 朝雲新聞社, 1972.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本土防空作戰』, 朝雲新聞社, 1974.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本土方面海軍作戰』, 朝雲新聞社, 1975.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陸軍航空兵器の開発・生産・補給』, 朝雲新聞社, 1975.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中國方面海軍作戰(1)』, 朝雲新聞社, 1974.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海軍航空概史』, 朝雲新聞社, 1975.

富長 謙吾,『現代史資料(39)太平洋戦争(五)』, みすず書房, 1975.

山辺 慎吾,『濟州島, 豊榮丸遭難事件』, 彩流社, 1999.

森田 芳夫,『朝鮮終戦の記録』, 巖南堂書店, 1964.

戦没船を記録する會,『知られざる戦没船の記録下巻』, 拓植書房, 1995.

戦争遺跡保存全国NetWork編著,『日本の戦争遺跡』, 平凡社新書, 2004.

井本 熊男,『大東亞戦争作战日誌』, 芙蓉書房出版, 1998.

種村 佐孝,『대본영(大本營)機密日誌』 芙蓉書房出版, 1995.

- 佐用 泰司,『海軍設營隊の太平洋戦争』,光人社,2001.
- 青木孝壽,『松代대본영(大本營) 歴史の証言』,新日本出版社,2001.
- 椎野 八束,『玉碎戦と特別攻撃隊』,新人物往來社,1998.
- 椎野 八束,『太平洋戦争聯隊戦史』,新人物往來社,2000.
- 豊田 穰,『海軍軍令部』,講談社,1987.

## 〈ABSTRACT〉

### A Study on Japanese Military Bases constructed on the Jejudo at the end of the Asia · Pacific War - Focusing on Moseulpo Area-

Wonbok, Kim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Graduate School

Hanshin University

There are many war remains being buried and destroyed in Jejudo, without identifying how and why they made. The war remains are strong tools to clearly indicate terrible reality of war and contents of colonial control by Japan. As modern wars are total wars, we can access to the reality of wars without identifying wars both to tally and specificall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the process looking at structures, constructing methods and functions of the war remains and arranging and investigating the reality and historical factors.

This study analyzed basic historical materials regarding Japanese military bases constructed on Jejudo which was emerged new point of strategic importance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and identified Japanese administrative policy about Jejudo through systematical analysis of Japanese strategies.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to accomplish the purpose. We collected and analyzed Japanese literature from the war history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library of National Congress in Japan as Korean literature was not sufficient.

The finding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Jejudo became the point of strategic importance at the end of World War II as it was located on the way to transfer war supplies, air

bases on the island must be protected and Japan must make preparations against U.S.S.R participating in the World War II. As a result, it is identified that both Japanese Naval force and land force started to fortify the island from at the end of 1944.

Second, in regard to chronological order and overview of facilities related to war preparation by Japan, the naval special force bases located in Songak mountain, the east side of Songak mountain, Satal-Orum and Sanesudong area, 4 anti-aircraft artillery points on the top of Satal-Orum, underground evacuating facility of Satal-Orum, tochka ruins and underground caves of Useungsangak, underground caves near Kyoraeri, circular military caves located along with the shore of Jejudo with regular distance (approximately 8 km-10km), navel special force bases located on the shore of Ilchulbong of Seongsan, Sammaebong of Seoguipo, Suwolbong of Kosan, Seowoobong of Hamduk and American defense caves located on the shore of Sarabong and Beoldobong of Jeju city were identified. However, all of the Japanese military facilities are not identified. Especially, as there are little domestic resources, it is urgent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World War II, such as a Aldr naval air base.

All investigations for the battle fields, which have been conducted up to now in Jeju depend on site inspection and actual survey based on the testimony of residents, rather than battle field investigation by a specialist.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deep and systematic researches about why, when and who constructed the military facilities are continuously required.